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교육여행 만족도가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

-제주방문 서울지역 고교생의 성별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김 연 수

2017년 8월

교육여행 만족도가 재방문 의사에 미치는 영향

-제주방문 서울지역 고교생의 성별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최 용 복

김 연 수

이 논문을 관광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年 8月

김연수의 관광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7年 8月

The Effect of Educational Travel Satisfaction on Return Intentio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visiting Jeju-

Kim, Yeon su

(Supervised by professor Yong-bok,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Development

2017. 8.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구성	5
제2장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7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개념	7
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특징	10
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현황 및 유형	16
제2절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만족도	31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만족도 개념	31
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만족도 평가지표	33
제3절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행동의도	36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행동의도 개념	36
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재방문 및 추천의사 평가지표	38
제3장.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40
제1절 연구의 틀	40
1. 연구모형	40
2. 가설설정	40

제2절 연구설계	42
1. 연구대상	42
2. 연구방법	43
제3절 설문지 구성과 분석방법	44
제4장. 실증분석	46
제1절 사례대상지 개관	46
제2절 표본의 특성	47
1. 조사대상의 특성분석	47
2. 교육여행에 관한 빈도분석	48
3. 교육여행 만족도 분석	55
제3절 가설 검증	65
제4절 분석결과	74
제5장. 결론	79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7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81
참고문헌	83
설문지	89
Abstract	9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
[그림 2.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
[그림 2.2]	한국과학창의재단 크레존 홈페이지	25
[그림 2.3]	국내체험프로그램 활동1	27
[그림 2.4]	국내체험프로그램 활동2	27
[그림 2.5]	국외체험프로그램 활동1	30
[그림 2.6]	국외체험프로그램 활동2	30
[그림 3.1]	연구모형	40

표 목 차

<표2-1> 청소년 관광의 개념	9
<표2-2> 대규모 수학여행과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12
<표2-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추진절차	13
<표2-4> 수학여행에 관한 선행연구	15
<표2-5>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관광시장 현황	17
<표2-6> 학생들이 원하는 수학여행 테마	18
<표2-7>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분류	19
<표2-8> 제주도교육청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분류	20
<표2-9>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현황	21
<표2-10>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 지원사례	25
<표2-11> 프로그램 운영 국외사례	29
<표2-12> 수학여행 만족도 선행연구	32
<표2-1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도 평가 지표 영역 구성	34
<표2-14>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도 평가지표	35
<표2-15> 행동의도 선행연구	37
<표2-16> 교육관광행동의 선행연구	38
<표2-17>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행동 의사결정 평가 지표 영역구성	39
<표2-18>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행동 의사결정 평가	39
<표3-1> 연구대상의 특성	42
<표3-2> 분석방법	43
<표3-3> 설문지 구성	44
<표4-1> 제주도내 교육여행 현황	46
<표4-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47
<표4-3> 여행가이드, 여행기간 일반적 사항	48
<표4-4> 여행기간만족도	49

<표4-5> 가이드만족도	49
<표4-6> 여행을 통해 얻은것	50
<표4-7> 개인 사용용돈	51
<표4-8> 교육여행필요성	52
<표4-9> 재미있었던 프로그램	52
<표4-10> 재미없었던 프로그램	53
<표4-11> 가장 좋았던점	54
<표4-12> 가장 안좋았던점	54
<표4-13> 일반적사항 만족도 남학생 통계량	55
<표4-14> 프로그램만족도 남학생 통계량	56
<표4-15> 행동의사결정에 남학생 통계량	57
<표4-16> 추천의사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58
<표4-17> 재방문의사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59
<표4-18> 일반적사항 만족도 여학생 통계량	60
<표4-19> 프로그램만족도 여학생 통계량	61
<표4-20> 행동의사결정에 여학생 통계량	62
<표4-21> 추천의사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63
<표4-22> 재방문의사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64
<표4-23> 성별에 따른 만족도 집단 통계량	65
<표4-24> 성별에 따른 만족도 독립 표본검정	66
<표4-25> 성별에 따른 추천의사 독립 표본검정	67
<표4-26> 성별에 따른 재방문의사 독립 표본검정	67
<표4-27> 여행전후 인상 집단 통계량	68
<표4-28> 여행전후 인상 독립표본 검정	68
<표4-29> 남학생의 여행전후 대응표본통계량	69
<표4-30> 여학생의 여행전후 대응표본통계량	69
<표4-31> 남학생의 만족도에 따라 추천의사 다중회귀분석	70
<표4-32> 여학생의 만족도에 따라 추천의사 다중회귀분석	71
<표4-33> 남학생의 만족도에 따라 재방문의사 다중회귀분석	72

<표4-34> 여학생의 만족도에 따라 재방문의사 회귀분석	73
<표4-35> 성별에 따른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 가설검정결과	74
<표4-36> 성별에 따른 여행전후 가설검증결과	74
<표4-37> 남학생의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 가설검증결과	75
<표4-38> 여학생의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 가설검증결과	76
<표4-39> 조사대상 전체의 여행전후 가설검증결과	77
<표4-40> 조사대상 전체의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 가설검증결과	7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수학여행은 학창시절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추억 중 하나일 것이다. 수학여행이라는 명분과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단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라는 부분이 더 크기도 했다. 현재도 수학여행은 진행되고 있으나, 예전처럼 여행이라는 의미와 함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관광의 유형과 패턴이 교육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로 달라지고 있는데, 주5일제수업, 창의체험활동, 자유학기제와 그리고, 기존의 학년별 대규모 수학여행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급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관광과 교육이 합쳐진 청소년 관광이 최근 관광시장에서 새롭게 급부상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관광형태와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학생들을 지역관광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과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김현주,2012).

이러한 와중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학여행의 폐지 논란이 일었고, 학습에 불필요한 요인이라는 비판과 함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수학여행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수학여행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사고의 확장 등 교육적 목적뿐만 아니라 인성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이 중론이다(경향신문,2014).

이에 따라 학생들의 공동체정신과 체험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존 대규모 수학여행에서 소규모로 테마형 교육여행의 주제를 정하여 실시하도록 교육여행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교육여행에 단점으로 교육여행의 비용증가, 여행코스 선정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작은 규모에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안전점검 미비로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교사가 장소 및 숙박지 선정과 안전점검과 업체계약 등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 수학여행의 형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혜정,2012). 따라서

대규모 및 소규모 수학여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이론적 개발과 실증분석의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신명석(2002)은 수학여행은 청소년 시절에 미래 관광자로서 관광에 대하여 초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였다. 유기석·김향석(2006)은 수학여행의 가치는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잠재성은 높고 큰 시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으로서의 가치와 관광분야에서의 중요성을 매우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장경수(2010)는 수학여행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학여행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재방문 요구를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통한 구전효과를 높여야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 교육관광은 그 활동내용이 교육의 과정이며,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관광분야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래 관광행동 의사결정인 재방문의사와 추천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분야이기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청소년 교육관광시장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주도 방문한 청소년에 대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에 만족도와 그리고 미래관광행동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에 대하여 파악하고 둘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만족도와 만족 요인을 파악하여, 재방문의사 및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청소년교육관광이 관광시장에서 큰 분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장하는 교육관광시장임을 감안하고, 자아개발 욕구가 높은 청소년들에 교육관광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공사(2006)는 청소년기의 관광 경험은 그 횟수는 작지만, 미래 관광 이미지와 관광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행사처럼 여겨지던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생과 학부모님에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주제와 테마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여행 콘텐츠 및 교육여행 코스에 대한 문제점과 기존의 교육여행지는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빠르게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 스타일에 맞춘 대응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교육적 체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교육 체험과 관광만족도, 행동의도에 재방문의사와 추천의사 관계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이론적 연구를 통해 첫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알아본다. 둘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관광 만족도와 행동의도간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현행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증조사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학생들이 교육여행을 통하여 교육관광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요인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 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이 재방문의사 및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의 성별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제공할 필요한 기초자료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방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 6월과 2017년 4월에 방문하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대상은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정학년과 특정지역을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조사대상이 모두 서울지역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한정되었다.

설문지는 400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하고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유효 표본으로 386부를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data coding)과정을 거쳐 SPSS 23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제주를 방문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는 연구주제에 관련 국내·외 관광학 관련논문과 서적, 통계자료 및 간행물과 인터넷 자료 등에 자료조사를 통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도, 행동의도에 재방문과 추천의사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실증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다양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여 변수화한 뒤, 일반적인 사항과 만족도 그리고 행동의도 등을 분석하였고, 제주 방문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대상자는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자기기입방식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23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학생 일반적 사항과 교육여행 일반적 사항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고, 성별에 따른 만족도 분석은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하였으며, 만족도-추천의사와 만족도-재방문의사는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정은 독립표본t검증분석, 대응표본t검증분석,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전체 5장으로 되었고, 각 장에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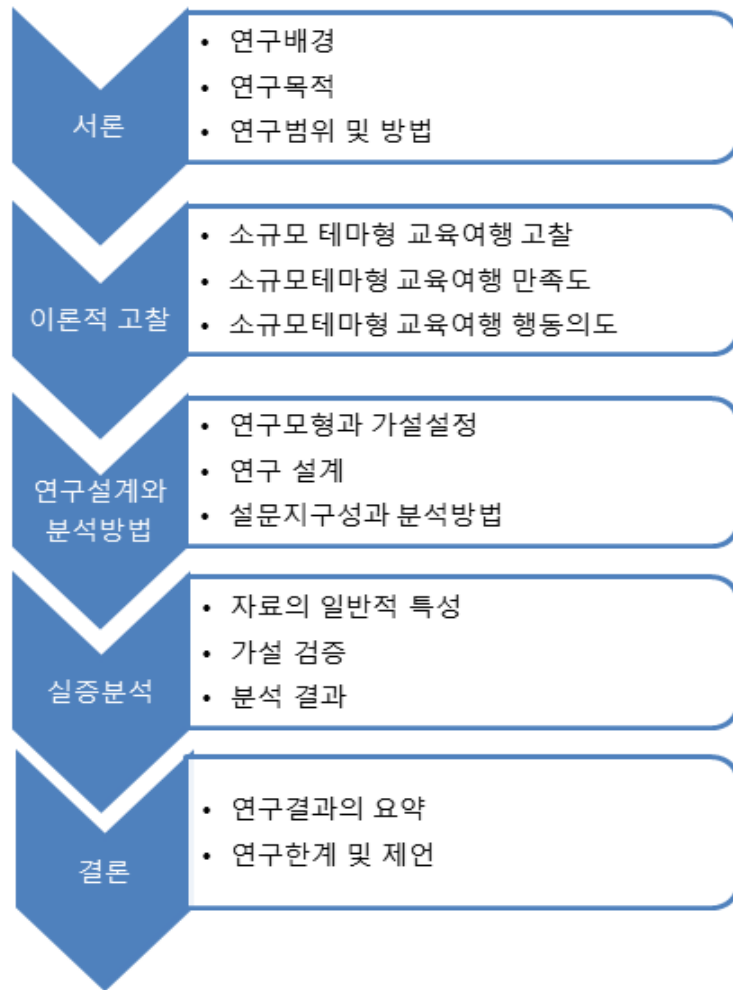
제2장은 이론적 고찰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개념과 특징, 현황 및 유형, 그리고 교육여행의 만족도와 재방문 및 추천의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3장은 앞에서 기술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설정, 설문구성 및 조사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은 조사 자료의 실증분석으로 기초분석, 교육여행의 만족도가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 연구결과 요약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에 흐름도는 [그림1-1] 아래와 같다.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개념

교육여행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유럽에서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혔던 대여행(Grand Tour)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진흥왕때 화랑을 선발하여 명산대천을 유람하며 신체와 정신을 수련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윤경열,2005). 1910년 이후 서양식 교육이 시작되면서, 수학여행이 점차 실행되고 광복 후부터 일반화되어 초·중·고, 대학교까지 정기적으로 시행되었지만, 6.25 전쟁으로 수학여행은 중단되었으나, 1960년대 다시 수학여행은 시작되었고, 1970~1980년대 경제성장으로 소득향상, 해외여행 대중화 등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수학여행은 실시되었으며, 그 후로 대규모 수학여행을 진행되다가 현재에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이르고 있다(관광산업연구소,1996).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은 학교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주제가 있는 테마를 정하여 다양한 경험 및 체험을 통해 배움을 얻는 교육여행이다.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체험형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수학여행은 관광 성수기인 봄과 가을에 똑같은 장소에 한학년 단위로 대이동을 하는 대규모 집단형에서 소규모인 학급단위 규모로 주제가 있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2012)에서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개념은 학교 교육과 연계해 테마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제공해주는 교육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김현주(2011)은 “단순한 유람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교양을 얻고자 다른 지역을 여행하며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혜정(2012)은 “교육을 목적으로 자연생태, 역사·문화등 학습과 경험을 목적으로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관광 유형” 이라고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2015)에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통제 위주였던 대규모 수학여행과 형식적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서 벗어나 “학생의 오감을 깨워 깊이 있는 체험과 배움이 있고 안전한 교육여행”이다.
- 교사와 학생들이 토론을 통하여 관람형 관광에서 벗어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구성하는 교육여행이다.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숙박형 교육활동이다.

‘테마형 교육여행’은 문화유산, 첨단산업체, 기념관 및 유적지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를 선정해서 프로그램과 일정을 편성하여 교육여행을 실시하는 것이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역사유적지를 체험하고, 동식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동식물을 관찰하고, 그리고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므로써 학생들에 교육적인 부분과 만족감은 높을 것이다.

김현주(2011)는 청소년 관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광의 개념

청소년 관광은 청소년으로 정의된 연령대에 집단이 학교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경험 및 체험을 통하여 배움을 얻고 교류와 즐거움 및 교육 등의 목적을 갖는 관광이다.

2) 교육여행의 개념

청소년 및 가족을 포함해서, 새로운 지역을 방문해 그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문화 등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배움을 얻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이다.

3) 학습관광의 개념

학습관광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 제도권학습과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비제도권 체험교육과 문화 탐방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이다.

4) 체험학습의 개념

학교 밖에서 조사·관찰, 생활탐구, 참여활동 등 직접적 경험학습을 통하여 배움을 얻는 학습방법이다.

5) 수학여행(대규모)의 개념

대규모 관광·관람형 수학여행이며, 교사 인솔아래 학교 밖 새로운 장소에서 직접 현장학습을 통해 배움을 얻는 교육과정으로서 실시되는 숙박형 관광 유형이다.

6)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개념

형식적인 관람형 대규모 수학여행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토의·토론을 통하여 주제를 정하여 다양한 체험거리로 테마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한 숙박형 교육 여행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형태의 청소년 관광을 종합하면 아래 표 <표2-1>와 같다.

<표2-1> 청소년 관광의 개념

분류	내용
청소년 관광	새로운 지역에 경험 및 체험을 통해 배움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여행	가족을 포함해 새로운 지역을 방문 그 지역에 대한 학습을 통해 얻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관광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학습 등 체험학습 등을 목적으로 한다.
체험학습	학교 밖에서 직접적 경험학습을 통하여 배움을 얻는 학습방법이다.
수학여행 (대규모)	대규모 집단형 수학여행이며, 교사 인솔하에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하면서, 교육과정으로서 숙박을 하는 관광·관람형 관광이다.
테마형교육여행 (소규모)	학생들이 토의·토론을 통하여 주제를 정해, 지역에 사회, 자연, 문화 등에 대해 직접 체험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기 위한 숙박형 교육여행이다.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김계섭(1998)은 관광은 ‘tour’라는 단어와 학문과 이념의 뜻인 ‘ism’이 추가되었으면, 이는 나라를 돌아다니며 현장 학습을 한다는 의미로 ‘돌아다니면서 배운다’라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나카 이사무(2005)는 교육관광은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관광을 의미하며, 협의의 의미는 관광객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한 관광활동으로 정의하였다.

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특징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특징

청소년 교육관광의 특징으로 교육적 동기가 강조되고, 교육과정으로서 ‘학습’과 ‘관광’이 결합된 개념이며, 그리고, 아직까지는 교육관광에 참여의사 결정권한이 제한적으로 교사 및 학부모에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문창현,2013).

청소년기에 형성된 관광지의 생각이나 이미지가 훗날 관광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소비자 집단이 된다는 것은, 청소년이 관광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은 토의, 토론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육여행으로 기존 대규모 수학여행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위한 것이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의 가치를 높이며, 지역의 다양화를 통하여 학생들 선택에 따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려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박정애,2016).

현재 재학시절 최소 한 번 이상의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있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은 1팀당 학생수 100명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후 150명 미만까지는 가능하기도 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기존 수학여행 또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이라는 용어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은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서울시교육청,2012).

수학여행의 특징에 대하여 메이킨도 ‘관광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교육에 일부’라고 하였다. 근대 초의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의 주요도시를 여행한 그랜드투어(grand tour)의 궁극적인 목표도 교육에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교육적 관광은 새로운 세계에 대해 지평을 열어주고,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윤경렬,2005).

2) 대규모 수학여행과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의 특징 비교

기존 대규모 수학여행은 규모면에서는 학년단위 대규모집단으로(150명이상) 같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광형 여행으로 교육적 목적 보다는 행사중심이다. 동일한 시기에 학교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학생들은 수동적 형태로 참여한다. 숙소지 통제가 쉽고, 음식의 질을 통일시킬 수 있으며, 대규모 인원이기 때문에 여행경비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통일된 일정으로 인해 코스별 비교로 인한 불만은 없다. 계획에서 실행까지 업무분담이 용이하나, 이동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인솔시 학생통제가 어려우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숙박 시설에 질 저하와 객실에 과다인원 배정으로 불편함이 크다. 다양한 학생요구를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코스편성이 미흡하여 만족도가 낮다(신명석,200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은 1팀당 100명에서 150미만으로 소규모 형태로 움직이고, 주제와 테마를 정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와 주제는 학생과 학부모님에 의견을 수용하고 결정과정에 직접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소수의 이동으로 차량 운행시 이동 시간이 빠르고 교통사고 위험도도 감소하며, 소수인원으로 학생인솔이 용이하고, 다양한 숙박시설 이용과 숙박시설의 질도 높아졌다(김영면,2007). 학생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다양한 여행코스를 선정할 수 있으며, 교육효과의 극대화되고, 코스에 만족이 높아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아졌지만, 단점으로 야간 안전관리 인원이 부족하고, 인솔시 교사가 여러 가지 역할로 부담감이 크고, 또한 일부 식당에 음식에 질이 떨어지며, 소규모로 인해 여행경비가 증가되고, 코스선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김영면,2007).

대규모 수학여행과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의 특징을 비교 정리하면 아래 <표 2-2>와 같다.

〈표2-2〉 대규모 수학여행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구분	대규모	소규모	연구자/출처
규모	학년단위 (150명이상)	1팀당100-150명내외	
특징	대규모 집단이 같은 관광지를 둘러보는 관람형 관광 여행	주제와 테마를 정하고, 직접 체험하는 체험형 교육여행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경비가 소규모보다는 적다. - 코스별 비교로 인한 불만은 없다. - 소수의 교사만으로 답사가 가능하며, 소규모보다는 절차가 어렵지 않아서 교사의 수학여행 진행하는데 수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학부모님에 의견을 수용하고 결정과정에 직접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 다양한 여행코스 선택이 가능하다. - 교육 효과가 극대화된다. - 소수 인원으로 학생 인솔이 용이하다. - 다양한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소수의 차량 운행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한다. 	신명석(2002) 정은영(2013) 김현주(2011) 조혜경(2008) 김현자(2015)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시기에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수동적 형태로 참여한다. - 대규모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 인솔시 학생통제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 숙박 시설에 질 저하와 과다 인원 배정이 우려된다. - 다양한 학생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인원이라서 여행경비가 증가한다. -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스별 비교로 인하여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다르다. - 프로그램 선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여행 형태	한 학년 전체 같은 지역 관광지를 관람형 관광을 한다.	목적지별(지역별), 테마별(역사, 문화, 예술, 자연생태, 과학, 체험)로 학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추진 절차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학교에서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학생들은 학급 활동 및 토의 시간을 통해 직접 교육여행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학부모님들께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학교의견을 정리한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 여부 및 프로그램 결정, 선호지역 조사 등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설문조사 결과가 70% 초과 동의시 교육여행을 추진한다(서울시교육청,201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여 시기, 장소, 프로그램, 활동 경비 등 협의 후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최종 운영에 대해 활성화 위원회 2차 협의를 거쳐 최종 심의를 한다(서울시교육청,201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시 계획 안내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님께 최종 발송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지역별 또는 테마별 프로그램에 따라 사전 안전교육(안전사고 대처, 학교폭력 및 성범죄예방)을 실시하며,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운영 안내가 이루어지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운영하고난 후 경비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지며, 참가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다음 교육여행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시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 및 교육청홈페이지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대한 운영보고와 만족도 조사 및 실시 결과를 공개 등록한다(서울시교육청,2015).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의 추진절차를 정리하면 아래 <표 2-3>와 같다.

<표2-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추진절차

추진절차	업무 추진 내용
사전준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전달 연수 및 1차 담임회의
	기본계획안 수립
기본계획서 작성	학부모 동의율 조사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참가 여부 및 선호 지역 조사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학부모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른 2차 담임 회의
	학급 토의·토론 실시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희망 지역 및 프로그램 운영을 주제로 학급 토의·토론 실시→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희망 지역, 프로그램 결정
심의(자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지답사	현장 답사
업체선정 및 계약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운영 계획안‘학교운영위원회’1차 심의
	입찰 공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개최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운영 최종 계획‘학교운영위원회’2차 심의
세부 실천계획 수립 사전교육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시 계획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각종 안전사고 대처, 학교폭력 및 성범죄 예방
수학여행 실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운영
	경비 집행 및 정산
평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참가 학생,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시 결과‘학교운영위원회’보고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자료참조.

다나카 이사무(2005)는 교육관광에 대한 특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관광자가 관광에 의해 의식적, 계획적, 체계적으로 학습 하려는 특징을 나타낸다.

둘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잘 전달해 주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일반적 관광과 교육관광의 경험과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수학여행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은숙(1995) 수학여행 효율화를 위해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여행과정으로서의 중요성과 기능을 서술하여, 실태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명석(2002) 수학여행 대규모 집단과 수학여행 소규모 테마별에 만족도 비교를 하였고, 숙박, 교통, 장소, 관광지 일반 사항등 요인분석 및 전체적 만족 조사와 만족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요인을 찾고 수학여행 집단 크기별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문희숙(2005) 청소년들에 관광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고등학교 수학여행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수학여행의 청소년들에 관광만족 제고를 위해 영향요인 및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고경자(2005) 고등학교 수학여행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대구 고등학교 생들의 수학여행 실태를 조사하여 수학여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 하였다.

박정희(2003) 고등학교 수학여행에 교육 효과 향상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수학여행에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학생들에 의견을 반영하며, 수학여행 집단을 소규모화 하고, 편의시설의 고급화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수학여행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요구되었다.

위에서 파악된 수학여행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아래 표 <표2-4>와 같다.

<표2-4> 수학여행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우은숙(1995)	수학여행의 효율화를 위해 실태분석을 하여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명석(2002)	만족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찾아서 수학여행 집단의 크기별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문희숙(2004)	관광만족 제고를 위해 영향을 미칠 요인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고경자(2006)	수학여행 실태를 조사하고, 그로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하였다.
박정희(2003)	학생들의 의견 반영, 소규모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 수학여행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현황 및 유형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현황

수학여행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직접참여 할 수 있는 교육 체험활동 중심에 ‘체험형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관광 성수기인 봄·가을에 같은 장소에 수백명이 동시에 이동하는 대규모 집단형에서 소규모 집단 규모로 활동하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라는 집단에 기준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0년에는 학생 수 100명 이내로 규정 하였고, 2012년도에는 4학년 150명 정도로 조금 증가시켰다. 2010년 약7%였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이 제도 도입 이후 2011년에는 약44%에서 2012년에는 약93%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 제도가 잘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문창현,2013).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학여행은 각 학교에서 교육청의 운영지침을 참고해서 계획하고 실시하며, 계획, 결과보고 및 계약 결과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 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의 모든 학교가 학급별로 테마와 주제를 정하여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학급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토의하여 교육여행의 장소 및 기간, 테마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관광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각 학교의 교육관광 참여율 현황은 2008년 86.7%에서 2010년 95.5%로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참여율은 2008년 75.5%에서 2010년 97.1%로 급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문창현,2013).

교육관광지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여행지는 2008년 경남·북(37.7%), 제주도(32.8%), 강원도(11.6%)에서 2010년 제주도(51.8%), 경남·북(20.8%), 강원도(9.7%) 순으로 나타났고, 제주도가 교육여행지로 선호도가 경남·북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여행지는 2008년 일본(64.4%), 중국(23.7%)에서 2010년 일본(50.4%), 중국(32.5%) 순을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성장세가 높아짐을 알 수 있고, 또한, 여행기간은 대부분 3일(81.3%)과 4일(11.7%)이 여행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행경비 비용은 초등학교 평균 비용 166.3천 원, 중학교 168.8

천 원, 고등학교 320.5천 원이 지출하고 지출내용은 교통비 50.3%, 숙박비 34.1%, 기타 15.7% 등이다(문창현,2013).

위에서 파악된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관광시장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표2-5>와 같다.

〈표2-5〉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관광시장 현황

구분	현황	
서울시 각급 학교(초중고)의 교육관광 참여율	2008년	86.7%
	2010년	95.5%
국내 여행지	2008년	경남·북(37.7%), 제주도(32.8%), 강원도(11.6%)
	2010년	제주도(51.8%), 경남·북(20.8%), 강원도(9.7%)
해외 여행지	2008년	일본(64.4%), 중국(23.7%)
	2010년	일본(50.4%), 중국(32.5%)
여행기간	3일	81.3%
	4일	11.7%
	5일	8.7%
여행경비	초등학교	166.3천 원
	중학교	168.8천 원
	고등학교	320.5천 원
지출항목	교통비	50.3%
	숙박비	34.1%
	기타	15.7%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문창현(2013)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김영훈(2004)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선택한 수학여행 테마는 남학생은 레포츠체험, 해양·생태체험, TV·영화촬영지여행지와 이색문화체험, 그리고, 오지·국토체험, 공연관람 순서이며, 그리고, 여학생은 해양·생태체험과 이색문화체험과 레포츠체험, 그리고, TV·영화촬영지여행지 및 병영·사관학교체험 순서로 나타났다.

위에서 파악된 학생들이 원하는 수학여행 테마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표 <표2-6>와 다음과 같다.

<표2-6> 학생들이 원하는 수학여행 테마

항목	남학생 인원(명)	남학생 비율(%)	여학생 인원(명)	학생 비율(%)	비고
문학여행	7	4.5	2	1.5	
역사여행	7	4.5	2	1.5	
공연관람	9	5.8	7	5.2	
레포츠체험	30	19.5	20	14.8	
사진촬영여행	5	3.3	13	9.6	
TV,영화촬영지 여행	23	14.9	19	14.1	
자연, 환경여행	6	3.9	3	2.2	
이색문화체험	16	10.4	24	17.8	
진통체험	0	0.0	1	0.7	
만들기(제작)체험	1	0.6	2	1.5	
극기체험	7	4.5	1	0.7	
병영, 사관학교 체험	3	1.9	8	5.9	
봉사여행	1	0.6	0	0.0	
건축여행	1	0.6	1	0.7	
사찰, 종교여행	2	1.3	0	0.0	
해양, 생태체험	25	16.2	25	18.5	
오지, 국토체험	10	6.5	6	4.4	
과학, 산업시찰	1	0.6	1	0.7	

자료 : 김영훈(2004), 수학여행모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재인용.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매년 300여개 규모에 수학여행 모델 코스를 개발하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시·도간 MOU 체결을 하여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인솔도우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학생 인턴쉽 운영 및 폐교를 활용한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2015).

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테마유형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는 선생님들에게 교육여행을 쉽고 편리하게 계획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단체와 연계해서 지역과 다양한 테마 분야로 교육여행 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내용을 테마별로 분류하여 역사·전통형, 문화·예술형, 농·산·어촌형, 자연생태형, 과학탐구형, 이색체험형 등의 테마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박정애,2016).

<표2-7>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분류

테마구분	내용
역사·전통	박물관, 역사관, 유적지 등
문화·예술	예술마을, 한옥마을, 문학관, 공연관람 등
농·산·어촌	농·어촌 캠프, 농·산·어촌 체험마을, 갯벌체험 등
자연생태	생태공원, 자연휴양림, 올레길, 계곡 등
과학탐구	우주박물관, 과학관, 천문과학관, 엑스포 과학공원 등
미래진로	탐구형(천문학자, 식물학자), 진취형(정치지도자, 스포츠스타)등
이색체험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사격장, 승마, 래프팅 등

자료 : 박정애(2016), 수학여행 유형에 대한 연구.



[그림2-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표2-8 > 제주도교육청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분류

테마구분	내 용
자연 생태체험	자연환경과 생태 관람에 관계된 체험활동과 특성화된 각 지역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다.
문화 예술체험	다른 지역의 예술, 관습, 민속, 전통등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 체험놀이이다.
역사체험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다.
진로체험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을 직접 견학하고, 진로탐색을 한다.
에너지·과학체험	에너지 및 과학 관련 탐방을 한다.

자료 :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코스 참조, 연구자 재구성.

제주도 방문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청소년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숙소는 항공우주호텔, 대명리조트, 금호리조트, 켄싱턴 리조트등 편안한 숙식과 여가시간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했다. 그리고, 제주도 특성에 따른 4·3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에 대한 4·3 및 다문화 테마 프로그램, 제주에 생활풍습을 알수 있는 제주문화 테마 프로그램, 제주도에 내려져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제주설화 테마 프로그램, 제주도에는 재밋고 다양한 과학박물관이 많아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과학 테마 프로그램, 제주에 바람을 이용한 에너지 테마 프로그램, 제주에 특색 있는 지질 상태를 과학과 연계해 직접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지질 테마 프로그램, 역사적인 유적지를 찾아볼 수 있는 역사 테마 프로그램, 세계가 인정한 곳자왈 숲과 오름들은 제주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자연학습이라 할 수 있고, 숲과 오름 테마 프로그램, 산과 바다, 다양한 체험 박물관, 그리고 학생들이 어디서나 선택해 즐길 수 있는 체험 테마 프로그램등 다양한 분야별로 나뉜 테마형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선택해 여행코스를 만들 수 있다(제주도교육청,2017).

제주도에서는 여행하는 동안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문 테마 여행 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제주자연에 대한 설명 가능한 강사와 4·3에 관련한 평화의 섬 분야, 제주에 모든 문화에 관련한 제주문화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고, 학생 수 50명당 1명의 강사를 요청 할 수 있다(제주도교육청,2017).

위에서 파악된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표 <표2-9>와 다음과 같다.

〈표2-9〉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현황

구분	내 용	
제주도 숙소	항공우주호텔, 대명리조트, 금호리조트, 켄싱턴 리조트, 한화콘도..등	
제주도 테마형 프로그램	4·3 및 다문화	4·3평화공원, 북촌너븐숭이 기념관, 곤을동, 다랑쉬마을,

사례	제주문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성읍민속마을,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제주 들문화공원, 제주마방목지, 해녀학교, 해녀박물관
	제주설화	오백장군, 외돌개, 혼인지, 삼성혈
	과학	다빈치 뮤지엄, 별빛누리공원, 넥슨 컴퓨터 박물관, 정석항공관, 항공우주박물관
	에너지	제주 글로벌 연구센터, 행원풍력발전단지, 국가태풍센터, 스마트 그리드 홍보관
	지질	산방산, 수월봉, 주상절리, 천지연폭포, 용머리해안, 만장굴, 성산 일출봉, 한라산국립공원
	역사	국립제주박물관, 제주항일기념관, 향파두리 항몽유적지, 삼양동 선사유적지, 삼성혈
	숲과오름	새별오름, 저지오름, 용눈이오름, 한라생태숲, 사려니숲길,꽃자왈
	체험	소인국테마파크, 한림공원, 제주 아쿠아플라넷, 서귀포잠수함, 제주별빛누리공원, 박물관이 살아있다.
테마 강사	제주자연	꽃자왈, 기후변화, 자연보존, 중산간개발, 에너지, 물, 동물, 오름, 환경교육, 장애인해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평화의 섬	제주4·3유적지, 역사, 4·3추가진상조사단
	제주문화	자연유산, 한라산, 역사, 자연(해양생태계), 오름, 문화, 제주역사, 4·3사건, 웃음치료, 긍정심리

자료 :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교육부가 제공하는 크레존(www.crezone.net)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정보를 볼 수도 있으며, 시·도교육청 수학여행지원단 등을 통하여 현장의 다양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확산하고 있다.

수학여행 실태와 특성을 보면, 초등학생은 봄에 중학생은 가을에, 고등학생은 봄, 가을이 비슷한 비율로 시행되었고, 초등학생은 학년단위로 시행되었으나,

중·고등학생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 주도형 수학여행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민,2007). 학년이 높을수록 소규모 교육여행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초등학생도 소규모 교육여행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숙박 및 음식점, 체험시설 등 대규모보다는 100여명 규모의 소규모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학여행 장소로 초등학생의 경우 경상권으로의 비중이 큰 반면, 중학생은 강원권의 비중이 컸으며, 고등학생은 제주 방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종훈,2015). 학년이 높을수록 교육여행의 관광지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지역의 방문 경험은 풍부해지고 선호도가 다양해짐에 따른 결과로 보아,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사례

중앙정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수학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테마별 새롭게 개발된 수학여행 코스 체험 운영, 우수 수학여행 사례 공모전 시행, 교육여행실태조사 등 여러 정책들을 활성화하고 있다. 역사전통, 문화예술, 농·산·어촌, 자연생태, 과학탐구, 미래진로, 이색체험 등 총 7개 테마별로 56개의 코스 개발과 체험단을 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테마와 코스를 체험하게 하여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 그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팜스쿨 사업과 웰촌, 농촌 전통테마 마을은 도시지역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못한 자연생태 및 농어촌 체험을 테마로 한 청소년 관광분야 이기도하다(이주영,2012).

나) 제주 및 지자체 청소년 관광 지원사례

제주에서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를 방문할 수학여행단을 위하여 숙박시설에 대하여 가스·전기·건축·소방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단에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주일 이내 점검결과를 안내해 주고 있다. 그리고, 테마 여행 수학여행 강사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각 분야를 살펴보면 제주자연분야, 평화의 섬 분야, 제주문화 분야별로 배치되어 있으며, 학생 수 50명당 1명의 강사 요청이 가능하다(제주도교육청,2017).

전라북도는 수학여행 전담 지도자가 수학여행단이 전라북도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일정에 전담 지도자가 동행하여 학생 인솔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선생님의 업무를 경감하고 청소년들의 활동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야간시간의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문화를 테마로 한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여행프로그램에 작성 및 음식점, 숙박 등 교사 및 학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편리한 예약을 지원하기 위해 수학여행 안내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해설사를 수학여행단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를 높이고, 여행 후 가족 등 관광확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학여행 후기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UCC를 통하여 다른 학교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해 알려주고 훗날 가족관광으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이주영,2012).

전라남도는 일정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학교에 제공하고, 교사 및 학생에 요구에 맞게 상품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박 2일 상품은 남도 해안길, 철과 선박해양을 제안하고, 2박 3일 상품으로는 과거에서부터 미래 우주 기지, 역사·문화체험, 역사탐방, 자연생태체험 등이 있으며, 이밖에 3박 4일 장기상품으로 슬로시티 기행, 해양생태관광, 자연생태탐방의 코스를 제시 하고 있고, 수도권외 교감선생님, 수학여행담당교사,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수도권에서 수학여행 설명회를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을 지역관광으로 끌어들이고, 이와 더불어 74개소 중소형 숙박업소에 안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며, 수학여행 전담 안내원과 관광 해설사를 배치해서 편리한 여행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학여행 전담 여행사를 육성하는데, 전문 인력의 교육 실시 후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운영하여 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이주영,2012).



[그림2-2] 한국과학창의재단 크레존 홈페이지

<표2-10>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지자체 지원사례

구분	내용
<p>중앙정부 및 유관기관</p> <p>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농림수산식품부</p>	<p>맞춤형 수학여행의 상담 서비스, 신규 수학여행 테마별 코스 체험 운영, 우수 사례 공모전 시행, 총 7개 테마별로 56개의 코스를 발굴하였다. 팜스쿨 사업과 웰촌, 농촌 전통테마 마을, 자연생태 및 농어촌 체험 테마도 있다.</p>

지자체 청소년 관광	제주	숙박시설에 대하여 가스·전기·건축·소방 점검등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자연, 평화의 섬, 제주문화 분야별 강사가 배치되어 있다.
	전라북도	전담 지도자 제도를 시행하며, 야간시간에는 지역 문화를 테마로 한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활동을 지원한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수학여행 후기 UCC 공모전을 개최해 다른 학교에 정보를 제공한다.
	전라남도	일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학여행 전담 여행사를 육성하여 사회적 기업 방식으로 운영하며, 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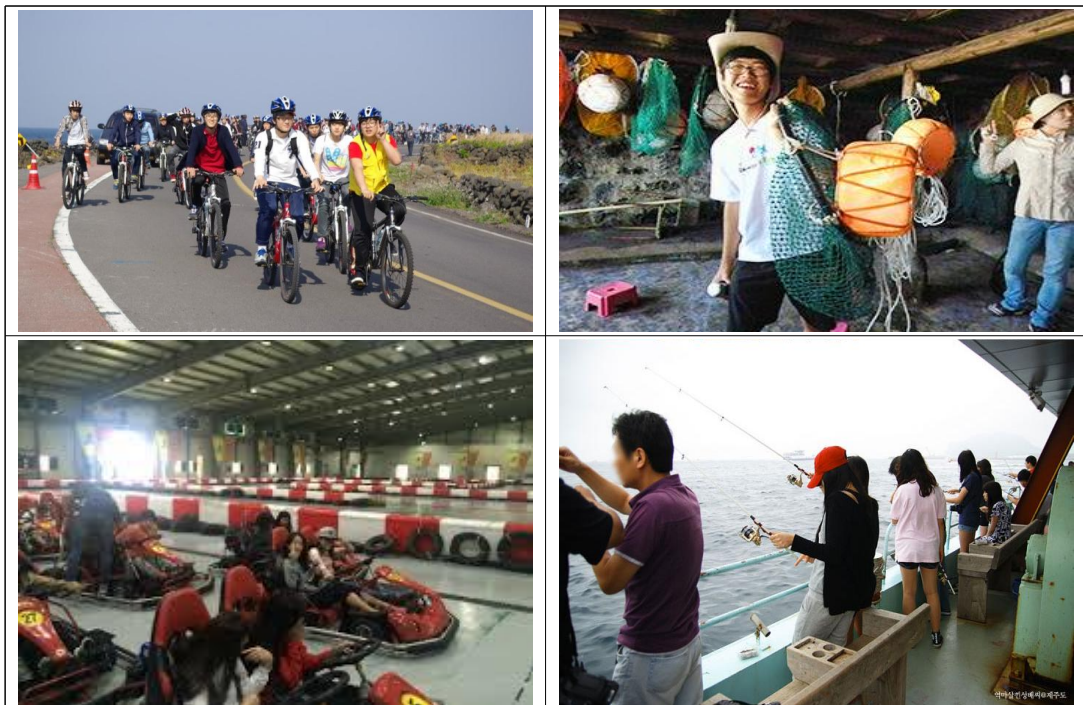
자료 : 이주영(2012),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그림2-3] 국내 체험프로그램 활동1



자료 : Google 청소년 프로그램 이미지

[그림2-4] 국내 체험프로그램 활동2



자료 : Google 청소년 프로그램 이미지

다) 프로그램 운영 국외사례

미국은 청소년들이 6박7일 동안 국회의원과 함께 미국 의사당, 미국최고법정, 국회도서관 등을 탐방하는 워싱턴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역사, 정치,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연방정부의 주요시설을 체험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자연자원 보호·복구 프로그램 YCC(Youth Conservation Corps)를 운영하는데, 청소년 대상 자연자원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미국 내 모든 국립공원에서 운영된다(김현주,2011). 멤피스에서는 멤피스 관광재단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에게 관광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산업의 기본윤리, 호텔, 관광산업 리더들과의 토론 시간을 제공한다(김현주,2011). 그리고,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원 및 자연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운영주체는 사우스코타주 정부이며, 청소년들은 자연생태학, 사슴트래킹, 보트안전관리, 야생동물 관찰 및 촬영 등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김현주,2011).

일본 후쿠시마에서도 청소년 학습관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후쿠시마현과 관광물산 교류협회에서 다양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호기심에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일본 내 학교는 물론 일본의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농림어업, 사회생활, 자연환경, 스포츠, 역사문화, 전통공예 등의 6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후쿠시마현 학습관광 프로그램은 지자체, 학교, 지역기업, 지역주민의 협력하에 이루어진다(조혜정,2012).

영국 런던에서는 놀이의 날 행사, 아동예술의 날 행사, 테임즈강 페스티벌 등 청소년 문화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데, 놀이의 날 행사는 실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매년 전국규모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편, 매년 대규모 아동 예술의 날 축하행사가 개최되는데, 예술단체 등이 행사에 참가하여 청소년을 위한 특별예술행사와 워크숍,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또한 매년 테임즈강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아동을 위한 축제가 별도로 마련되기도 한다(조혜정,2012).

독일 베를린에서는 1999년부터 매해 'Youth Berlin' 청소년 박람회가 열리고, 경력개발, 직업소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업과 진로 등에 대한

토론회, 스포츠 프로그램, 음악공연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조혜정,2012).

프랑스 파리에서는 ‘파리의 젊은 모험가들’이라는 주제로, 파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류학, 문화, 과학, 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여행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한다(조혜정,2012).

위에서 파악된 프로그램 운영 국외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2-11>와 같다.

<표2-11> 프로그램 운영 국외사례

구분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박7일 동안에 국회의원과 국회도서관, 미국 의사당, 미국최고법정을 체험하는 워싱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국립공원에서는 자연자원을 보호·복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멤피스에서는 관광재단이 중심이 되어 관광산업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우트다코타주에서는 공원 및 자연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본	<p>후쿠시마에서는 후쿠시마현과 관광물산 교류협회에서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한 역사문화, 전통공예, 자연환경, 농림어업, 사회생활, 스포츠 등의 6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p>
영국	<p>런던에서는 아동예술의 날 행사, 놀이의 날 행사, 테임즈강 축제등 청소년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p>
독일	<p>베를린은 1999년부터 ‘Youth Berlin’ 청소년 박람회 열고 있으며, 자신의 주제로, 직업소개, 경력개발에 대하여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p>
프랑스	<p>파리에서는 과학, 스포츠, 문화, 인류학을 주제에 대하여 여행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p>

자료 : 김현주(2011), 조혜정(2012),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그림2-5] 국외 체험프로그램 활동1



자료 : Google 청소년 프로그램 이미지

[그림2-6] 국외 체험프로그램 활동2



자료 : Google 청소년 프로그램 이미지

제2절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만족도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만족도 개념

1) 관광만족

관광 후 행동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자신이 여행한 관광지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선택을 평가하고, 나아가 관광지의 재방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같은 관광지를 여행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족을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한편 어떤 사람은 불만족을 스스로 해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다른 관광지로 변경하거나 여행을 포기하기도 한다(박애경,2012).

고동우(1998a, 1998b)는 관광객 만족은 방문전 기대와 방문 결과와의 일치 여부에서 형성되는 소비자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만족의 개념은 관광 체험 마지막 단계를 대표하는 심리적 구성이고, 관광활동을 통해 다양한 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이 선택한 관광체험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다.

이유재(1995)는 관광 만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과정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였다.

Baker 와 Crompton(2000)은 ‘전반적 만족’은 관광 후 관광객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통제 가능한 현장뿐만 아니라 통제범위 밖에 있는 외부적인 변수(사회적 상호작용, 날씨)와 관광객의 사회 심리상태(동기, 성향, 요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반적 사후 만족(overall posthoc satisfaction)의 개념에 대해 Lounsbury와 Polik(1992)는 관광 참여 학생이 체험 후에 이미지를 파악함으로써 관광 체험적 총체에 대한 태도라고 정의 하였다.

Fridgen(1991)는 관광자 만족은 관광마케팅하고 직접 연계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관광객은 대한 재방문하고 싶어 하며, 더 많은 잠재 관광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명석(2002)은 수학여행 대규모와 소규모 주제여행에 만족도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소비자 수요의 변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체험·교육관광이 점점 중요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형식에 치우친 대규모 수학여행은 기존의 여행형

식에서 탈피해 다른 여행형태에 소규모 주제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문희숙(2005)은 학생들에 의사결정 참여수준이 수학여행에 만족도에 대한 연구로서, 수학여행 실태 조사한 결과, 수학여행 관광지 속성 및 선호에 대한 설문으로 수학여행 선정 시 살펴볼 사항으로 역사유적지, 자연경관지등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곳과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소규모 순서로 밝혀졌다.

이재섭·김경원(2009)은 교육관광상품 분야에 따라 만족도, 재구매 의사, 추천의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교육관광 상품 분야를 견학·체험, 진로·인성개발, 어학, 역사·문화 네 가지 분야로 나뉘었으며, 이러한 교육관광도 만족도, 재구매 의사, 추천의사 세 변수에는 정의 상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12〉 수학여행 만족도 선행연구

연구자	정의
고동우 (1998a, 1998b)	관광객의 방문전 기대와 방문 결과와의 일치 여부에서 형성되는 소비자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욕구가 충족된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 선택한 관광체험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다.
이유재 (1995)	관광 만족은 두 가지로, 하나는 결과를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Baker 와 Crompton (2000)	관광자에 외부적인 변수(사회적 상호작용, 날씨)와 관광자 사회 심리적 상태(동기, 성향, 요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ounsbury와 Polik(1992)	관광체험에 대한 사후 이미지를 파악함으로써 관광체험 총체적으로 일종에 태도라 정의 하였다.
Fridgen (1991)	관광마케팅하고 직접 연계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은 관광객은 재방문하고 싶어 하며, 더 많은 잠재 관광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명석 (2002)	소비자 수요의 변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체험·교육관광이 점점 중요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형식에 치우친 기존의 대규모 수학여행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규모 수학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p>문희숙 (2005)</p>	<p>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수준과 수학여행에 만족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실시해본 결과, 수학여행 관광지 속성 및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학여행 선택시 고려할 사항을 연구하였다.</p>
<p>이재섭· 김경원 (2009)</p>	<p>교육관광 상품분야를 견학·체험, 진로·인성계발, 어학, 역사·문화, 네 가지 분야로 나뉘었으며, 이러한 교육관광 만족도, 재구매 의사, 추천의사, 세 변수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p>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관광경험을 통해 실제 만족이 기대수준보다 크면 관광객은 계속해서 그 관광지를 재방문할 것이고 관광지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될 것이다. 관광객은 조건에 맞는 서비스에 가장 만족해하므로, 관광사업자나 관광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관광조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만족을 충분히 느끼도록 해야 한다(문희숙,2005).

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만족도 평가지표

만족도란 교육관광 경험에 있어서 특정부분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신명석(2002), 문희숙(2005), 이재섭·김경원(2009)의 선행연구자의 이론과 제주 교육여행 자원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자료 내용들을 분석하여, 역사·전통문화자원, 문화·예술테마, 자연생태, 과학탐구, 체험테마 등이 공통된 테마로 분석하였다. 각 테마 프로그램으로 분류화 하고 각각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여 현황을 분석한 바탕으로 본 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교육관광의 만족도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표2-1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도 평가지표 영역 구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연구자
숙소	숙소 안전성과 필요한 시설과 청결상태를 파악하고, 추천여부를 파악한다.	신명석(2002), 문희숙(2005), 이재섭·김경원(2009), 김영훈(2004)
프로그램	역사·전통테마, 문화·예술테마, 자연생태 테마, 과학탐구 테마, 체험 테마, 프로그램이 교육과정과 연계등 테마별 흥미도를 파악한다.	
강사	문화해설사(지도강사)는 재밌고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는지 파악한다.	
교통	버스운행기사는 친절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은 만족하였는지 파악한다.	
식사	식사는 맛과. 양은 충분하였는지, 그리고 청결한 관리상태를 파악한다.	
기타	이번 여행 내용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파악한다.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숙소, 프로그램, 강사, 교통, 식사 등 만족도 평가항목으로 가장 기본적 관광서비스 분야로서, 대규모 수학여행이 실시 되었을때는 불만족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나오기도 한다. 현재 소규모로 진행되었을 때 예전과 다르게 만족과 불만족이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기 위한 중요한 평가항목이기도 하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숙소, 교육, 식사 등 여러 가지 항목은 시간적, 기능적으로 결합된 종합 상품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기간 동안 이러한 여행 평가항목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불만족 하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교육여행상품 기획시 고려 하므로써 앞으로 상품의 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행의 실시 시기, 목적지 선정, 학생들의 여행활동내용, 숙박지 선정, 교통수단 선정, 음식점 선정, 경비결정, 학생규모 결정, 일정결정 등 모든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그들의 만족과 불만족 상태를 측정한다(김영훈,2004).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제주도 실정에 맞는 만족도 평가 지표를 만들었다.

〈표2-14〉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도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숙소	1. 숙소가 안전하였다.
	2. 잠자기에 편안하였다.
	3. 숙소에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추어 있었다.
	4. 숙소가 청결하였다.
	5. 후배들에게 이 숙소를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싶다.
프로그램	1. 역사·전통테마가 흥미 있었다. (성읍민속마을, 향목유적지....등)
	2. 문화·예술테마가 흥미 있었다.(이중섭미술관, 제주추사관(김정희)... 등)
	3. 자연생태 테마가 흥미 있었다. (올레길, 성산일출봉,...등)
	4. 과학탐구 테마가 흥미 있었다.(항공우주박물관, 다빈치뮤지엄... 등)
	5. 체험 테마가 흥미 있었다.(메이즈랜드, 카트, 레일바이크..... 등)
	6. 프로그램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7 문화 해설사(지도강사)는 친절하게 지도하였다.
	8. 문화 해설사(지도강사)는 재미있었다.
	9. 문화 해설사(지도강사)가 도움이 되었다.
교통	1. 버스운행기사는 친절하였다.
	2. 버스운행기사는 안전하게 운행하였다.
	3. 이용한 교통수단은 만족스러웠다.
식사	1. 식사는 맛있었다.
	2. 식사의 양은 충분하였다.
	3. 식당은 청결하게 관리되었다.
	4. 조리종사원은 친절하였다.
기타	1. 이번 여행 내용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통해 느끼는 교육여행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요인을 찾아내어 향후 학생들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대한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학교와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지도 지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행동의도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행동의도 개념

1) 행동의도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개인의 태도와 행동사이의 중간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행동의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태도를 만든 후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의지와 신념으로 말할 수 있다(Fishbein & Ajzen, 1985).

김영주(2005)는 행동의도에 대해 관광지 관련한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당 관광지에 다시 방문하려는 욕구가 느껴지는 ‘재방문 의도’와 관광지에 여러 체험에 바탕으로 개인이 타인에게 긍정적 방향으로 구전할 정도를 의미하는 ‘추천의도’를 말한다. 따라서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사’는 관광지와 관련한 체험들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Oliver(1980)는 여행만족이 태도와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검증 하였다. 여행자만족이 높을수록 서비스품질에 대한 여행자의 태도는 좋아지고 서비스의 구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Bitner, 1990).

Curren & Folkes(1987)은 제품성과에 대한 귀인이론에 근거하여 긍정적인 구전과 부정적 구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조사 하여 Richins의 연구를 확장시켰으며,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구전의 대상이 여행자 또는 기업이건 상관없이 여행자의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2-15〉 행동의도 선행연구

연구자	정의
Fishbein & Ajzen(1985)	개인의 태도와 행동사이의 중간요인으로 인식되며, 개인에 주관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Oliver(1980)	여행만족이 태도와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검증 하였다.
Bitner (1990)	양적, 물적 질적인 환경은 여행자 만족을 높이면, 서비스의 구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
Curren & Folkes(1987)	긍정적인 구전과 부정적 구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 Richins의 연구를 확장시켰다.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2) 재방문 및 추천의도

고객이 만족도가 높으면 재방문 의도는 높아질 것이고 만족도가 낮으면 재방문 의도는 낮아지므로, 고객의 재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객의 만족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은미,2005). 선행연구에서도 관광자 만족의 결과변수로서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사를 소비자 구매의도, 즉 행동의도에 개념으로 말해 왔으며, 관광만족과 함께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사가 관광경험 후의 심리적 변수라고 하였다(하광수 · 한범수, 2001).

관광객의 만족과 재방문 및 추천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승각(2011)은 도시 관광 만족은 재방문과 구전에 미칠 영향 연구에 따르면, 여행만족도 요인으로 여행지, 음식, 숙박시설, 쇼핑 4개로 나누었으면, 이들 중 쇼핑요인이 재방문 및 구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전형규(2008)는 관광행동이란 특정 관광지의 지속적 방문 및 적극적인 구전활동 의도라고 하였다.

이은미(2005)는 관광목적지에 관광동기와 이미지가 관광객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재방문의사는 관광객이 관광지에 재방문하거나 지속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으로 볼 수 있으며, 관광지의 방문한 관광객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평가가 좋으면 재방문의도가 증가하고, 평가가 나쁘면 재방문 의사는 감소할 것이다.

〈표2-16〉 교육관광행동의 선행연구

연구자	정의
하광수 · 한범수 (2001)	전반적으로 관광만족도와 함께 추천의사와 재방문 의사가 관광경험 후의 심리적 변수라고 하였다.
유승각(2011)	여행만족요인을 여행지, 쇼핑, 음식, 숙박시설 4개로 나누었으면, 이들 중 쇼핑이 재방문 및 구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전형규(2008)	특정 관광지의 지속적 방문 및 적극적인 구전활동의도라고 하였다.
이은미(2005)	관광지 재방문 의사는 방문지 관광객이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평가가 좋으면 재방문의사가 증가하고, 평가가 나쁘면 재방문 의도는 감소할 것이다.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재방문 및 추천의사 평가지표

관광객의 관광행동은 만족도, 추천의사, 재방문의사와 같은 형태로 관광 동기나 교육관광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육 관광지에 만족으로 지속적으로 재방문하거나 추천하는 상태라 말할 수 있다. 하광수·한범수(2001)은 관광만족과 재방문 의도와 추천의도가 관광경험 후 심리적 변수이다. 유승각(2011)은 4개분야로 나뉘서 여행지, 쇼핑, 음식, 숙박시설 중 쇼핑이 재방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전형규(2008)는 만족한 관광지는 지속적 방문하며 적극적인 구전을 한다. 이은미(2005)는 평가가 좋으면 재방문의도가 증가하고, 평가가 나쁘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들을 바탕으로하여 본 연구에 성격과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교육관광의 재방문의사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 표2-17〉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행동 의사결정 평가지표 영역 구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연구자
추천할 의사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하광수·한범수(2001), 유승각(2011), 전형규(2008), 이은미(2005)
재방문 의사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후 제주도에 다시 방문할지 여부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추천할 의사는 관광지의 다양한 체험에 근거해서 관광객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구전할 정도를 의미하는데, 만족도가 높은 관광지에 대해 관광객은 재방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구전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제주도 실정에 맞는 만족도 평가 지표를 만들었다.

〈표2-18〉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행동 의사결정 평가

평가부문	평가지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행동의사 결정	소규모 테마형 교육프로그램에 만족에 따라 추천할 의사가 있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프로그램에 만족에 따라 재방문 의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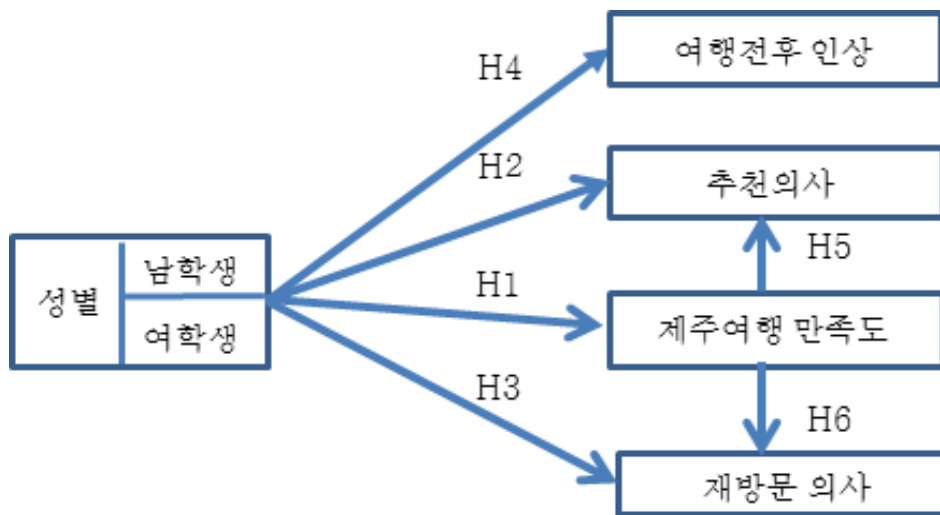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제3장.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제1절 연구의 틀

1. 연구모형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만족이 향후 학생들이 관광에 대한 인식과 관광지에 대한 재방문 또는 타인에 대한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여행의 현황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3-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김광근·장경수(2001)의 관광지의 교육성이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오명신(2001)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교육적인 체험활동은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학생성별에 따라 제주여행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성별에 따라 숙소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1-2)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1-3) 성별에 따라 교통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1-4) 성별에 따라 식사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2. 학생성별에 따라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학생성별에 따라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학생성별에 따라 제주여행 출발 전과 후의 인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1) 성별에 따라 여행 전 인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2) 성별에 따라 여행 후 인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 교육여행의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추천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1) 성별에 따라 숙소만족도는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2)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만족도는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3) 성별에 따라 교통만족도는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4) 성별에 따라 식사만족도는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교육여행의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재방문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6-1) 성별에 따라 숙소만족도는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2)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만족도는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3) 성별에 따라 교통만족도는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4) 성별에 따라 식사만족도는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도가 재방문 의사와 추천의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을 기초로 교육여행의 현황을 파악하고, 일반적 사항과 만족도, 인구 통계적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주도 방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2016년 6월과 2017년 4월 서울소재에 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특정학년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대상 모두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한정되었다. 여행기간은 3박4일을 기준으로 테마별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모두 교통편으로 비행기를 선택하였다. 여학교, 남녀공학으로 구성되었고, 숙소는 항공우주 호텔을 이용하였다. 비용은 평균적으로 대략 350,000~390,000원이 사용되었고, 일정계획 및 결정은 추진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기본여행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과 학부모님께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였다.

〈표3-1〉 연구대상의 특성

항목	내용
조사기간	2016년 6월, 2017년 4월
연구대상	서울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교형태	여학교, 남녀공학
여행기간	3박4일
숙박	항공우주호텔
교통편	비행기
비용	대략 350,000~390,000원
일정계획 결정	학교 운영위원회, 교사, 학생, 학부모 <표2-3> 추진절차 참고

2. 연구방법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와 행동의도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국내·외 논문 및 서적, 통계자료와 간행물, 인터넷 자료 등의 자료조사를 통해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 행동의도에 대하여 이론 체계를 구축하여 실증적 연구에 틀을 구성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변수들에 내용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제주 방문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대상자는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자기기입방식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23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hi-square test), 상관관계분석, t-test, 회귀분석(Regressin Analysis) 등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400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지를 제외한 최종 유효386부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딩(data coding) 과정을 거쳐 SPSS23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3-2〉 분석방법

구분	분석방법	목적
기초분석	빈도분석	일반적 특성 파악 및 데이터 요약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	변수들간의 관계성
가설검증	t-test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간의 영향관계 검증
	회귀분석	

제3절 설문지 구성과 분석방법

설문지에 구성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목적과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 내용은 부록편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여행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규모테마 여행기간, 여행안내 가이드, 여행경비,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의 필요성 및 얻은 것, 재미있던 프로그램, 재미없는 프로그램 등 세부항목 10개에 대해 조사하였다.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만족도 요인 22문항으로 일반적 사항부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학습효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만족 요인은 측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명목척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3-3〉 설문지 구성

조사영역	변수명	문항수	척도	선행연구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반사항	여행기간	1	리커트 5점 척도	유기석·김항석(2006), 고영길·박용민(2011)
	여행안내 가이드	2		
	학습효과	1		
	여행경비	1		
	교육여행 필요성	1		
	프로그램	2		
	가장 만족/불만족	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도에 관한 사항	숙소	4	명목척도	김영훈(2004), 문희숙(2005), 신명석(2002), 이재섭·김경원(2009)
	프로그램	9		
	교통	3		
	식사	4		
	기타	1		
	추천할 의사	1		
	여행전후인상	2		
재방문의사	1			
학생일반 사항	성별	1		
	학년	1		
	방문횟수	1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의 과정으로써 교과교육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일관적인 학교교육을 공간적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 문화를 경험하는 종합적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김영훈(2004) 이재섭·김경원(2009), 고영길·박용민(2011), 신명석(2002), 문희숙(2005)의 연구에서 개발되어진 척도를 통해서 수학여행에서 고등학생들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22문항을 가지고, 여행 후 만족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척도(1= 그렇다, 2= 약간 그렇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지 않다, 5=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재방문 및 추천의사에 대해서는 이재섭·김경원(2009)의 교육관광의 만족도가 재방문의사와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사용된 2문항을 가지고, 추천의도의 척도(1=있다, 2=조금 있다, 3=조금 없다, 4=없다, 5=모르겠다)로 측정하였고, 재방문의 척도(1=그렇다, 2=조금 그렇다, 3=조금 그렇지 않다, 4=그렇지 않다, 5=모르겠다)를 적용하였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실증분석은 설문조사를 통해 회수된 유효 표본을 가지고 SPSS Ver. 23을 통해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만족요인에 대한 만족요인이 재방문 및 추천 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만족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가설검정은 t-test과 대응표본t-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사례대상지 개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수학)여행의 감소로 제주관광이 위축되었지만, ‘안심교육(수학)여행’ 시행으로 감소했던 교육여행은 점차 회복되고 있다. 안심교육여행 서비스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 교통, 체험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사전 통보해 주는 제도로써,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심교육(수학)여행’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하여 국내 항공편 공급에 증가로 교육여행이 수월해졌다. 그리고, 제주에 특색 있는 문화, 예술, 자연,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여행 선호도가 높다.

〈표 4-1〉 제주도내 교육여행 현황

구 분		내 용		
국내 여행지 선호도	2008년	경남·북(37.7%), 제주도(32.8%) , 강원도(11.6%)		
	2010년	제주도(51.8%) , 경남·북(20.8%), 강원도(9.7%)		
제주 교육(수학)여행 현황	2011년	603,094명		
	2012년	558,125명		
	2013년	508,946명		
	2014년	170,273명		
	2015년	257,395명		
안심교육(수학)여행 서비스 신청학교현황(2017.4.30기준)	신청학교	이용인원	비고	
	2014.4.22.까지 누계	139개교	16,872명	
	2015.4.22.까지 누계	421개교	83,439명	2014년도 보다 303% 학교증감 2014년보다 495% 인원증감
	2016.4.30.까지 누계	797개교	139,475명	
	2017.4.30.까지 누계	838개교	148,326명	2016년 보다 8,851명 5.9%증감 2016년 보다 41개교 5.1% 증감
제주도 교육여행 전망	· ‘안심교육(수학)여행’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중국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국내 항공편 공급에 증가로 교육 여행에 수월하다.
- 제주에 특색 있는 문화, 예술, 자연,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여행 선호도가 높다.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자료 재구성.

제2절 표본의 특성

1. 조사대상의 특성

조사 표본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서울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학생 386명중 남학생은 167명 (43.4%), 여학생은 219명 (56.7%) 여학생으로, 여학생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학년은 모두 똑같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이전에 제주도에 방문했던 경험으로는 ‘처음(0회)’이 161명(41.7%)으로 제일 많았고, ‘1회’ 45명(11.7%), ‘2회’ 90명(23.3%), ‘3회’ 36명(9.3%), ‘4회’ 20명(5.2%), ‘5회이상’이 34명(8.8%)으로 나타났다.

〈표4-2〉 조사대상의 특성

구분	내용	빈도	퍼센트
성별	남학생	167	43.3
	여학생	219	56.7
학년	고등학교 2학년	386	100
제주도 방문경험	처음	161	41.7
	1회	45	11.7
	2회	90	23.3
	3회	36	9.3
	4회	20	5.2
	5회	34	8.8
합계		386	100

2. 교육여행에 관한 빈도분석

〈표4-3〉 여행가이드, 여행기간 일반적 사항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여행가이드	전문 여행가이드	102	26.4
	운행기사, 안내원	182	47.2
	인솔선생님	92	23.8
	안내자가 없음	10	2.6
여행기간	충분하다	171	44.3
	조금 충분하다	89	23.1
	보통이다	106	27.5
	조금 부족하다	17	4.4
	부족하다	3	0.8
총		386	100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일반적 사항으로 교육여행기간에 대한 질문에 ‘충분하다’ 44.3%으로 제일 많았고, ‘보통이다’ 27.5%, ‘조금 충분하다’ 23.1%, ‘조금 부족하다’ 17%, ‘부족하다’ 0.8%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여행기간에 대해 충분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여행가이드에 대한 질문에는 ‘운행기사, 안내원’ 47.2%, ‘전문 여행가이드’ 26.4%, ‘인솔선생님’ 23.8%, ‘안내자가 없음’ 2.6% 으로 조사되었다. 전문 여행가이드 안내가 운행기사와 안내원 보다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4〉 여행기간 만족도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남학생	충분하다	80	47.9%
	조금 충분하다	36	21.6%
	보통이다	44	26.3%
	조금 부족하다	5	3.0%
	부족하다	2	1.2%
총		167	100.0%
여학생	충분하다	91	41.6%
	조금 충분하다	53	24.2%
	보통이다	62	28.3%
	조금 부족하다	12	5.5%
	부족하다	1	0.5%
총		219	100.0%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에 따른 여행기간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남학생은 ‘충분하다’ 47.9%, ‘보통이다’ 26.3%, ‘조금 충분하다’ 21.6%, ‘조금 부족하다’ 3.0%, ‘부족하다’ 1.2%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인 경우 ‘충분하다’ 41.6%, ‘보통이다’ 28.3%, ‘조금 충분하다’ 24.2%, ‘조금 부족하다’ 5.5%, ‘부족하다’ 0.5%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녀학생 모두 여행기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5〉 가이드 만족도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남학생	매우만족	45	26.9%
	만족	111	66.5%
	불만족	5	3.0%
	매우불만족	1	0.6%
	해당없음	5	3.0%
총		167	100.0%

여학생	매우만족	50	22.8%
	만족	149	68.0%
	불만족	12	5.5%
	매우불만족	3	1.4%
	해당없음	5	2.3%
총		219	100.0%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에 따른 가이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남학생은 ‘만족’ 66.5%, ‘매우만족’ 26.9%, ‘불만족, 해당없음’이 3.0%, ‘매우 불만족’ 0.6%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인 경우 ‘만족’ 68.0%, ‘매우만족’ 22.8%, ‘불만족’ 5.5%, ‘해당없음’ 2.3%, ‘매우불만족’ 1.4%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녀 학생 모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6〉 여행을 통해 얻은것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남 학 생	직접보고, 체험을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4	20.4%
	교우 관계에 도움이 되었다	15	9.0%
	심신 단련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15	9.0%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100	59.9%
	기타	3	1.8%
총		167	100.0%
여 학 생	직접 보고, 체험을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46	21.0%
	교우관계에 도움이 되었다	24	11.0%
	심신 단련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11	5.0%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136	62.1%
	기타	2	0.9%
총		219	100.0%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질문에는 남학생인 경우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59.9%로 가장 많았고, ‘직접보고, 체험을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20.4%, '교우 관계에 도움이 되었다, 심신 단련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9.0%, '기타' 1.8%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인 경우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62.1%로 가장 높았고, '직접보고, 체험을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21.0%, '교우 관계에 도움이 되었다' 11.0%, '심신 단련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5.0%, '기타' 0.9%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남녀학생 공통적으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4-7> 개인사용 용돈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남 학 생	5만원미만	110	65.9%
	5만원이상 7만원미만	34	20.4%
	7만원이상 10만원미만	15	9.0%
	10만원이상	8	4.8%
총		167	100.0%
여 학 생	5만원미만	115	52.5%
	5만원이상 7만원미만	56	25.6%
	7만원이상 10만원미만	26	11.9%
	10만원이상	22	10.0%
총		219	100.0%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시 개인적인 용돈으로 사용한 금액을 묻는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5만원 미만'이 65.9%,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이 20.4%,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9.0%, 10만원 이상이 4.8%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5만원 미만'이 52.5%,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이 25.6%,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1.9%, '10만원 이상'이 10.0%으로 '10만원 이상'에 있어 남학생보다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보인다. 남녀 합쳐서는 '5만원 미만'이 225명(58.3%)이며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이 90명(23.3%),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1명(10.6%), '10만원 이상'이 30명(7.8%)으로 답하였다.

〈표4-8〉 교육여행 필요성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남 학 생	필요하다	62	37.1%
	어느정도 필요하다	88	52.7%
	어느정도 필요없다	10	6.0%
	필요없다	6	3.6%
	필요하나 개선이 요구된다	1	0.6%
총		167	100.0%
여 학 생	필요하다	85	38.8%
	어느정도 필요하다	112	51.1%
	어느정도 필요없다	9	4.1%
	필요없다	7	3.2%
	필요하나 개선이 요구된다	6	2.7%
총		219	100.0%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어느정도 필요하다’ 52.7%, ‘필요하다’ 37.1%, ‘어느정도 필요없다’ 6.0%, ‘필요없다’ 3.6%, ‘필요하나 개선이 요구된다’ 0.6%로 나타났다. 여학생 경우는 ‘어느정도 필요하다’ 51.1%, ‘필요하다’ 38.8%, ‘어느정도 필요없다’ 4.1%, ‘필요없다’ 3.2%, ‘필요하나 개선이 요구된다’ 2.7% 순으로 응답했다. 남녀학생 모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표4-9〉 재미있었던 프로그램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남 학 생	역사전통테마	8	4.8%
	문화예술테마	6	3.6%
	자연생태테마	17	10.2%
	과학탐구테마	21	12.6%
	체험테마	93	55.7%
	기타	22	13.2%
총		167	100.0%
여 학 생	역사전통테마	6	2.7%
	문화예술테마	6	2.7%
	자연생태테마	21	9.6%
	과학탐구테마	18	8.2%
	체험테마	126	57.5%
	기타	42	19.2%
총		219	100.0%

교육여행 기간중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체험테마’ 55.7%,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기타’ 13.2%, ‘과학탐구테마’ 12.6%, ‘자연생태테마’ 10.2%, ‘역사전통테마’ 4.8%, ‘문화예술테마’ 3.6%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체험테마’ 57.5%,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기타’ 19.2%, ‘자연생태테마’ 9.6%, ‘과학탐구테마’ 8.2%, ‘역사전통테마, 문화예술테마’ 2.7% 순으로 응답했다. 남녀학생 모두 체험테마가 가장 재미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표4-10〉 재미없었던 프로그램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남 학 생	역사전통테마	24	14.4%
	문화예술테마	14	8.4%
	자연생태테마	69	41.3%
	과학탐구테마	38	22.8%
	체험테마	13	7.8%
	기타	9	5.4%
총		167	100.0%
여 학 생	역사전통테마	31	14.2%
	문화예술테마	14	6.4%
	자연생태테마	83	37.9%
	과학탐구테마	36	16.4%
	체험테마	16	7.3%
	기타	39	17.8%
총		219	100.0%

반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중 가장 재미없었던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남학생은 ‘역사전통테마’ 14.4%, ‘문화예술테마’ 8.4%, ‘자연생태테마’ 41.3%, ‘과학탐구테마’ 22.8%, ‘체험테마’ 7.8% , ‘기타’ 5.4%, 자연생태테마가 가장 재미없었던 프로그램이라고 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도 비슷하게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생태테마가 가장 재미없는 프로그램이라고 했고, ‘기타’에 남학생보다 세 배 이상 응답하였다.

〈표4-11〉 가장 좋았던 점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남 학 생	불거리	20	12.0%
	먹을거리	20	12.0%
	체험학습	29	17.4%
	숙박	96	57.5%
	기타	2	1.2%
총		167	100.0%
여 학 생	불거리	43	19.6%
	먹을거리	23	10.5%
	체험학습	33	15.1%
	숙박	116	53.0%
	기타	4	1.8%
총		219	100.0%

교육여행 기간중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숙박’ 57.5%, ‘체험학습’ 17.4%, ‘불거리, 먹을거리’ 12.0% , ‘기타’ 1.2%%, 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숙박’ 53.0%,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불거리’ 19.6%, ‘체험학습’ 15.1%, ‘먹을거리’ 10.5%, ‘기타’ 1.8% 순으로 응답했다. 남녀학생 모두 숙박시설에 만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4-12〉 가장 안좋았던 점

항목	구분	빈도	퍼센트
남 학 생	불거리	30	18.0%
	먹을거리	60	35.9%
	체험학습	31	18.6%
	숙박	9	5.4%
	기타	37	22.2%
총		167	100.0%
여 학 생	불거리	32	14.6%
	먹을거리	81	37.0%
	체험학습	35	16.0%
	숙박	11	5.0%
	기타	60	27.4%
총		219	100.0%

반면, 교육여행 기간 중 가장 안 좋았던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먹을거리’ 35.9% , ‘기타’ 22.2%, ‘체험학습’ 18.6%, ‘불거리’ 18.0%, ‘숙박’ 5.4%, 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먹을거리’ 37.0%, ‘기타’ 27.4%, ‘체험학습’ 16.0%, ‘불거리’ 14.6%, ‘숙박’ 5.0%으로 순으로 응답했다. 남녀학생 모두 먹을 거리에서 불만족인 것을 알 수 있다.

3. 교육여행 만족도 분석

1) 성별 만족도 차이

〈표4-13〉 통계량(최빈값, 유효퍼센트)

남학생(N = 167)

구분	문항	응답항목	유효 퍼센트
일 반 적 사 항	여행기간만족도	충분하다	47.9
	여행안내자	운행기사,안내원	42.5
	가이드만족도	만족	66.5
	여행을 통해 얻은 것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59.9
	개인사용용돈	5만원 미만	65.9
	여행필요성	어느 정도 필요하다	52.7
	재미있었던 프로그램	체험테마	55.7
	재미없었던 프로그램	자연생태테마	41.3
	가장 좋았던 점	숙박	57.5
	가장 안좋았던 점	먹을거리	35.9

주) 응답항목 : 최빈값이 가장 많이 나온 항목 선택.

위 표는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 응답결과로, 남학생 167명의 최빈값이 많이 나온 응답항목과 유효 퍼센트이다. 우선 ‘여행기간만족도’ 문항에서는 47.9%로 ‘충분하다’라는 답변이 많았다. ‘여행안내자’ 문항에서는 42.5%가 운행기사와 안내원이었고, ‘가이드만족도’는 66.5%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을 묻는 질문에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가 59.9%로 과반수를 보였고, ‘개인 사용용돈’은 ‘5만원 미만’이 65.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52.7%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에는 ‘체험테마(메이즈랜드, 카트, 레일바이크,...등)’, 가장 재미없었던 프로그램에는 ‘자연생태테마(올레길,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천지연폭포...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숙박’이 가장 좋았던 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안 좋았던 점에서는 먹을거리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표4-14〉 통계량(평균,표준편차)

남학생(N = 167)

구분	문항	평균	표준편차	
만 족 도	숙소안전	1.30	.681	
	편안한 취침	1.34	.743	
	숙소시설	1.42	.824	
	숙소청결	1.44	.862	
	숙소추천여부	1.46	.890	
	역사전통흥미	2.36	1.088	
	문화예술흥미	2.23	1.107	
	자연생태흥미	2.38	1.175	
	과학탐구흥미	2.25	1.111	
	체험테마흥미	1.80	.995	
	공부에도움	2.26	1.093	
	사 항	강사친절도	1.88	1.011
		강사흥미도	1.92	1.012
		강사도움정도	1.88	.974
		기사친절도	1.43	.672
기사안전운행도		1.35	.641	
교통수단만족도		1.36	.679	
	식사의맛	2.11	1.111	
	식사의양	1.81	.922	
	식당청결도	1.95	1.005	
	조리원친절도	1.94	.986	
	여행도움정도	1.86	.918	

주) 만족도 측정항목은 5점 척도(1=그렇다, 2=약간 그렇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지 않다, 5=그렇지 않다) 표시하도록 하였다.

위 표는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도 5점 척도에 대한 남학생 167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1=그렇다, 2=약간 그렇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지 않다, 5=그렇지 않다) 숙소관련 문항에서 ‘숙소가 안전하였다(숙소안전)’는 1.30, ‘잠자기에 편안하였다(편안한 취침)’는 1.34, ‘숙소에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추어 있었다(숙소시설)’은 1.42, ‘숙소가 청결하였다(숙소청결)’는 1.44, ‘후배들에게 이 숙소를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싶다(숙소추천여부)’는 1.46으로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었다. 다음 프로그램 관련 문항에서는 ‘역사·전통테마가 흥미 있었다(역사전통흥미)’는 2.36, ‘문화·예술테마가 흥미 있었다(문화예술흥미)’는 2.23, ‘자연생태 테마가 흥미 있었다(자연생태흥미)’는 2.38, ‘과학탐구 테마가 흥미 있었다(과학탐구흥미)’는 2.25, 체험 테마가 흥미 있었다(체험테마흥미)는 1.80으로 나타나 비교적 체험테마 흥미의 평균이 높았다. 또한 ‘프로그램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공부에도움)’는 2.26, ‘문화해설사(지도강사)는 친절하게 지도하였다(강사친절도)’는 1.88, ‘문화해설사(지도강사)는 재미있었다(강사흥미도)’는 1.92, ‘문화해설사(지도강사)가 도움이 되었다(강사도움정도)’는 1.88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교통에 관한 문항에서도 ‘버스운행기사는 친절하였다(기사친절도)’는 1.43, ‘버스운행기사는 안전하게 운행하였다(기사안전운행도)’는 1.35, ‘이용한 교통수단은 만족스러웠다(교통수단만족도)’는 1.36으로 긍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식사 관련 문항에서는 ‘식사는 맛있었다(식사의맛)’는 2.11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고, ‘식사의 양은 충분하였다(식사의양)’는 1.81, ‘식당은 청결하게 관리되었다(식당청결도)’는 1.95, ‘조리종사원은 친절하였다(조리원친절도)’는 1.94로 나타났다. ‘이번 여행 내용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여행도움정도)’는 1.86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4-15〉 통계량(평균, 표준편차)

남학생(N = 167)

구분	문항	평균	표준편차
행동 의사 결정	추천의사	1.94	1.144
	여행 전 인상	1.54	.998
	여행 후 인상	1.68	1.141
	재방문의사	1.57	1.021

주) 행동의사결정에 척도는 (1=있다, 2=조금 있다, 3=조금 없다, 4=없다, 5=모르겠다)

위 표는 행동의사결정에 관한 남학생 167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우선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습니까?(추천의사)’문항은 1.94로 ‘조금 있다’에 가까운 평균을 나타냈다. 여행 출발 전 제주도에 대한 인상을 묻는 문항에는 평균 1.54로, 여행 후 제주도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묻는 문항은 1.68로 평균적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에 다시 방문하시겠습니까?(재방문의사)’에 대해서는 1.57로 평균적으로 긍정적이었다.

2) 추천의사와 만족도간 상관관계 분석

〈표4-16〉 추천의사와 만족도간 상관관계

추천의사	Pearson 상관	유의확률(양측)
숙소안전	0.348**	.000
편안한취침	0.308**	.000
숙소시설	0.340**	.000
숙소청결	0.430**	.000
숙소추천여부	0.412**	.000
역사전통흥미	0.443**	.000
문화예술흥미	0.472**	.000
자연생태흥미	0.357**	.000
과학탐구흥미	0.320**	.000
체험테마흥미	0.391**	.000
공부에도움	0.359**	.000
강사친절도	0.280**	.000
강사흥미도	0.355**	.000
강사도움정도	0.350**	.000
기사친절도	0.183*	.018
기사안전운행도	0.202**	.009
교통수단만족도	0.214**	.005
식사의맛	0.204**	.008
식사의양	0.183*	.018
식당청결도	0.301**	.000
조리원친절도	0.370**	.000
여행도움정도	0.480**	.000

상관관계가0.01 수준에서유의함(양측).**

상관관계가0.05 수준에서유의함(양측).*

위 표는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습니까?(추천의사)’와 22개의 만족도 문항을 상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추천의사와 22개의 문항들 간에는 유의수준 0.05 또는 0.01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숙소청결, 숙소추천여부, 역사전통흥미, 문화예술흥미에서 모두 Pearson 상관계수가 0.4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3) 재방문의사와 만족도간 상관관계 분석

〈표4-17〉 재방문의사와 만족도간 상관관계

재방문의사	Pearson 상관	유의확률(양측)
숙소안전	0.412**	.000
편안한취침	0.267**	.000
숙소시설	0.331**	.000
숙소청결	0.369**	.000
숙소추천여부	0.353**	.000
역사전통흥미	0.238**	.000
문화예술흥미	0.301**	.000
자연생태흥미	0.297**	.000
과학탐구흥미	0.205**	.008
체험테마흥미	0.408**	.000
공부에도움	0.302**	.000
강사친절도	0.323**	.000
강사흥미도	0.323**	.000
강사도움정도	0.305**	.000
기사친절도	0.229**	.003
기사안전운행도	0.202**	.009
교통수단만족도	0.268**	.005
식사의맛	0.065	.406
식사의양	0.100	.198
식당청결도	0.203**	.009
조리원친절도	0.291**	.000
여행도움정도	0.386**	.000

상관관계가0.01 수준에서유의함(양측).**

상관관계가0.05 수준에서유의함(양측).*

위 표는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에 다시 방문하시겠습니까?(재방문의사)’와 22개의 만족도 문항을 상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재방문의사와 대부분 문항들 간에는 유의수준 0.05 또는 0.01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식사의 맛, 식사의양에 관한 만족도는 재방문의사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숙소안전, 체험테마 흥미 문항만이 Pearson 상관계수가 0.4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4-18〉 통계량(최빈값, 유효퍼센트)

여학생(N=219)

구분	문항	응답항목	유효 퍼센트
일반적 사항	여행기간만족도	충분하다	41.6
	여행안내자	운행기사, 안내원	50.7
	가이드만족도	만족	68.0
	여행을 통해 얻은 것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62.1
	개인 사용용돈	5만원 미만	52.5
	여행필요성	어느 정도 필요하다	51.1
	재미있었던 프로그램	체험테마	57.5
	재미없었던 프로그램	자연생태테마	37.9
	가장 좋았던 점	숙박	53.0
가장 안 좋았던 점	먹을거리	37.0	

주) 응답항목 : 최빈값이 가장 많이 나온 항목 선택.

위 표는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 응답 결과로, 여학생 219명의 최빈값이 많이 나온 응답항목과 유효 퍼센트이다. 남학생 167명과 비교했을 때, 최빈값은 모두 같았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일반적 사항 문항에서 모두 같은 최빈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유효 퍼센트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우선 ‘여행기간만족도’ 문항에서는 41.6%로 ‘충분하다’라는 답변이 많았다. ‘여행안내자’ 문항에서는 50.7%가 운행기사와 안내원이었고, ‘가이드만족도’는 68.0%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을 묻는 질문에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가 62.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개인사용 용돈’은 ‘5만원 미만’이 52.5%로 과반수를 보였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51.1%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

였다.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에는 ‘체험테마(메이즈랜드, 카트, 레일바이크,... 등)’, 가장 재미없었던 프로그램에는 ‘자연생태테마(올레길,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천지연폭포...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가장 좋았던 점에는 ‘숙박’이 가장 안 좋았던 점에서는 먹을거리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사실상 남학생과 여학생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통계량을 나타냈다.

〈표4-19〉 통계량(평균,표준편차)

구분	항목	평균	표준편차	
만 족 도	숙소안전	1.41	.751	
	편안한취침	1.45	.879	
	숙소시설	1.51	.950	
	숙소청결	1.65	1.053	
	숙소추천여부	1.66	.980	
	역사전통흥미	2.36	1.089	
	문화예술흥미	2.30	1.057	
	자연생태흥미	2.42	1.207	
	과학탐구흥미	2.17	1.085	
	체험테마 흥미	1.73	.843	
	공부에 도움	2.26	1.085	
	사 항	강사친절도	2.05	1.059
		강사흥미도	2.11	1.075
		강사도움정도	2.07	1.060
		기사친절도	1.49	.803
기사안전운행도		1.40	.719	
교통수단만족도		1.46	.773	
	식사의 맛	2.21	1.151	
	식사의양	1.88	1.034	
	식당청결도	2.11	1.142	
	조리원친절도	2.00	1.038	
	여행도움정도	1.89	.969	

주) 만족도 측정항목은 5점 척도(1=그렇다, 2=약간 그렇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지 않다, 5=그렇지 않다) 표시하도록 하였다.

위 표는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도 5점 척도에 대한 여학생 219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1=그렇다, 2=약간 그렇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지 않다, 5=그렇지 않다) 숙소관련 문항에서 ‘숙소가 안전하였다(숙소안전)’는 1.41, ‘잠자기에 편안하였다(편안한 취침)’는 1.45, ‘숙소에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추어 있었다(숙소시설)’은 1.51, ‘숙소가 청결하였다(숙소청결)’는 1.65, ‘후배들에게 이 숙소를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싶다(숙소추천여부)’는 1.66으로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었다. 다음 프로그램 관련 문항에서는 ‘역사·전통테마가 흥미 있었다(역사전통흥미)’는 2.36, ‘문화·예술테마가 흥미 있었다(문화예술흥미)’는 2.30, ‘자연생태 테마가 흥미 있었다(자연생태흥미)’는 2.42, ‘과학탐구 테마가 흥미 있었다(과학탐구흥미)’는 2.17, 체험 테마가 흥미 있었다(체험테마흥미)는 1.73으로 나타나 비교적 체험테마 흥미의 평균이 높았다. 또한 ‘프로그램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공부에 도움)’는 2.26, ‘문화해설사(지도강사)는 친절하게 지도하였다(강사친절도)’는 2.05, ‘문화해설사(지도강사)는 재미있었다(강사흥미도)’는 2.11, ‘문화해설사(지도강사)가 도움이 되었다(강사도움정도)’는 2.07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교통에 관한 문항에서도 ‘버스운행기사는 친절하였다(기사친절도)’는 1.49, ‘버스운행기사는 안전하게 운행하였다(기사안전운행도)’는 1.40, ‘이용한 교통수단은 만족스러웠다(교통수단만족도)’는 1.46으로 긍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식사 관련 문항에서는 ‘식사는 맛있었다(식사의맛)’는 2.21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고, ‘식사의 양은 충분하였다(식사의양)’는 1.88, ‘식당은 청결하게 관리되었다(식당청결도)’는 2.11, ‘조리종사원은 친절하였다(조리원친절도)’는 2.00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행 내용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여행도움정도)’는 1.89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남학생 167명의 통계량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4-20〉 통계량(평균, 표준편차)

구분	항목	평균	표준편차
행동 의사 결정	추천의사	1.87	.936
	여행 전 인상	1.39	.761
	여행 후 인상	1.58	.947
	재방문의사	1.46	.814

주) 행동의사결정에 척도는 (1=있다, 2=조금 있다, 3=조금 없다, 4=없다, 5=모르겠다).

위 표는 행동의사결정에 관한 여학생 219명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우선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습니까?(추천의사)’문항은 1.87로 ‘조금 있다’에 가까운 평균을 나타냈다. 여행 출발 전 제주도에 대한 인상을 묻는 문항에는 평균 1.39로, 여행 후 제주도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묻는 문항은 1.58로 평균적으로 좋아졌다는 응답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에 다시 방문하시겠습니까?(재방문의사)’에 대해서는 1.46로 평균적으로 긍정적이었다.

4) 추천의사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분석

〈표4-21〉 추천의사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추천의사	Pearson 상관	유의확률(양측)
숙소안전	0.214**	.001
편안한취침	0.224**	.001
숙소시설	0.293**	.000
숙소청결	0.293**	.000
숙소추천여부	0.365**	.000
역사전통흥미	0.353**	.000
문화예술흥미	0.406**	.000
자연생태흥미	0.383**	.000
과학탐구흥미	0.248**	.000
체험테마흥미	0.303**	.000
공부에도움	0.464**	.000
강사친절도	0.437**	.000
강사흥미도	0.452**	.000
강사도움정도	0.430**	.000
기사친절도	0.209**	.002
기사안전운행도	0.202**	.003
교통수단만족도	0.237**	.000
식사의맛	0.337**	.000
식사의양	0.349**	.000
식당청결도	0.349**	.000
조리원친절도	0.391**	.000
여행도움정도	0.516**	.000

상관관계가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상관관계가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위 표는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습니까?’(추천의사)와 22개의 만족도 문항을 상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추천의사와 22개의 문항들 간에는 유의수준 0.05 또는 0.01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흥미, 여행도움정도에서 0.4이상으로 남학생 167명의 통계량과 마찬가지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공부에 도움, 감사친절도, 감사흥미도, 감사도움정도에서 모두 Pearson 상관계수가 0.4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5) 재방문의사와 만족도간 상관관계 분석

〈표4-22〉 재방문의사와 만족도간 상관관계

재방문의사	Pearson 상관	유의확률(양측)
숙소안전	0.258**	.000
편안한취침	0.210**	.002
숙소시설	0.201**	.003
숙소청결	0.288**	.000
숙소추천여부	0.312**	.000
역사전통흥미	0.315**	.000
문화예술흥미	0.338**	.000
자연생태흥미	0.325**	.000
과학탐구흥미	0.323**	.000
체험테마흥미	0.381**	.000
공부에도움	0.372**	.000
강사친절도	0.277**	.000
강사흥미도	0.286**	.000
강사도움정도	0.243**	.000
기사친절도	0.152*	.024
기사안전운행도	0.140*	.039
교통수단만족도	0.196**	.004
식사의맛	0.326**	.000
식사의양	0.343**	.000
식당청결도	0.274**	.000
조리원친절도	0.296**	.000
여행도움정도	0.415**	.000

상관관계가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상관관계가0.05 수준에서 유의함(양측).*

위 표는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에 다시 방문하시겠습니까?(재방문의사)’와 22개의 만족도 문항을 상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재방문의사와 대부분 문항들 간에는 유의수준 0.05 또는 0.01하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여행도움정도 문항만이 Pearson 상관계수가 0.4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숙소안전, 체험테마 흥미와 재방문의사의 상관관계가 0.4를 넘었던 남학생 167명의 통계량과 달리 여학생 219명에 대해서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제3절 가설 검증

1. 성별에 따라 제주여행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1-1) 성별에 따라 숙소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1-2)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1-3) 성별에 따라 교통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가설1-4) 성별에 따라 식사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표4-23〉 성별에 따른 만족도 집단통계량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숙소만족평균	남자	167	1.39	.700	.054
	여자	219	1.54	.808	.055
프로그램만족평균	남자	167	2.11	.837	.065
	여자	219	2.16	.848	.057
교통만족평균	남자	167	1.38	.622	.048
	여자	219	1.45	.731	.049
식사만족평균	남자	167	1.96	.875	.068
	여자	219	2.05	1.001	.068

〈표4-24〉 성별에 따른 만족도 독립표본검정

구분	Levene의 등분산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 의 표준 오차	차이의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숙소 만족 평균	등분산을가정함	8.031	.005	-1.828	384	.068	-.143	.078	-2.97	.011
	등분산을가정하지 않음			-1.863	377.754	.063	-.143	.077	-2.94	.008
프로 그램 만족 평균	등분산을가정함	.557	.456	-.675	384	.500	-.058	.087	-2.29	.112
	등분산을가정하지 않음			-.676	359.798	.500	-.058	.086	-2.28	.112
교통 만족 평균	등분산을가정함	5.970	.015	-1.005	384	.316	-.071	.070	-2.09	.068
	등분산을가정하지 않음			-1.027	379.320	.305	-.071	.069	-2.06	.065
식사 만족 평균	등분산을가정함	5.986	.015	-.988	384	.324	-.096	.097	-2.88	.095
	등분산을가정하지 않음			-1.006	376.868	.315	-.096	.096	-2.85	.092

성별에 따른 만족도평균은 차이가 없다. 성별과 각각의 만족도평균에 있어 모든 Levene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아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다. 먼저, 성별에 따른 숙소만족도평균 차이에 있어서 $t = -1.863$, 유의확률(양측) $p = 0.063$ 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라 숙소만족도평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하지 않다. 또한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만족도평균 차이에 있어서 $t = -0.675$, 유의확률(양측) $p = 0.500$ 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만족도평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교통만족도평균 차이에서는 $t = -1.027$ 유의확률(양측) $p = 0.305$ 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라 교통만족도평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식사만족도평균 차이에 있어서 $t = -1.006$, 유의확률(양측) $p = 0.315$ 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라 식사만족도평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하지 않다.

가설2. 성별에 따라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4-25〉 성별에 따른 추천의사 독립표본T검정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추천 의사	등분산을가정함	2.733	.099	.685	384	.494	.073	.106	-.136	.281
	등분산을가정하지않음			.666	316.048	.506	.073	.109	-.142	.287

성별에 따른 추천의사에 있어서 Levene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므로 등분산을 가정함이 확인되었다. t=0.685 유의확률(양측) p=0.494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라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하지 않다.

가설3. 성별에 따라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4-26〉 성별에 따른 재방문의사 독립표본T검정

구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재방문 의사	등분산을가정함	4.794	.029	1.202	384	.230	.112	.093	-.071	.296
	등분산을 가정하지않음			1.166	310.365	.244	.112	.096	-.077	.302

성별에 따른 재방문의사에 있어서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아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다. t=1.166 유의확률(양측) p=0.244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라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하지 않다.

가설4. 성별에 따라 제주여행 출발 전과 후의 인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1) 성별에 따라 여행 전 인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2) 성별에 따라 여행 후 인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4-27〉 여행전후 인상 집단통계량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여행전인상	남자	167	1.54	.998	.077
	여자	219	1.39	.761	.051
여행후인상	남자	167	1.68	1.141	.088
	여자	219	1.58	.947	.064

〈표4-28〉 여행전후 인상 독립표본 T검정

구분	Levene의 등분산검증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여행 전 인상	등분산을 가정함	8.379	.004	1.633	384	.103	.146	.090	-.030	.32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576	300.688	.116	.146	.093	-.036	.329
여행 후 인상	등분산을 가정함	2.599	.108	1.009	384	.314	.107	.106	-.102	.316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984	319.113	.326	.107	.109	-.107	.322

우선, 성별과 여행 전 인상에 있어 Levene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아서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다. 성별과 여행 전 인상의 통계량 $t = 1.576$, 유의확률(양측) $p = 0.116$ 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라 여행 전 인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하지 않다. 다음, 성별과 여행 후 인상에 있어서는 Levene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이 0.05보다 커서 등분산을 가정한다. 성별과 여행 후 인상의 통계량 $t = 1.009$, 유의확률(양측) $p = 0.314$ 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라 여행 후 인상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또한 유의미하지 않다.

가설4-3) 남학생의 경우 여행 전 후 인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4-29〉 대응표본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여행 전 인상	1.54	.998	-1.733	.085
여행 후 인상	1.68	1.141		

t값은 -1.733으로 (± 1.96 보다 크지만), 유의확률은 0.085로 0.05보다 크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여행전과 여행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 수준하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 여행 전 후 인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각한다.

가설4-4) 여학생의 경우 여행 전 후 인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4-30〉 대응표본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여행전인상	1.39	.761	-2.749	.006
여행후인상	1.58	.947		

t값은 -2.749로 (±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06로 0.05보다 작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여행전과 여행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 수준하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하며, 여학생의 경우 여행 전 후 인상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가설5. 교육여행의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추천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5-1) 성별에 따라 숙소만족도는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2)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만족도는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3) 성별에 따라 교통만족도는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4) 성별에 따라 식사만족도는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4-31〉 남학생의 만족도에 따라 추천의사 다중회귀분석

계수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52	.236		1.495	.137
숙소만족평균	.509	.128	.311	3.976	.000
프로그램만족평균	.513	.113	.375	4.558	.000
교통만족평균	-.190	.148	-.104	-1.284	.201
식사만족평균	.031	.109	.024	.288	.774

a. 종속변수: 추천의사
F=16.846, Sig=.000, R2=.294

‘남학생의 경우 만족도에 따라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숙소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976,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558, 유의확률이 .000으로 가설도 채택하였다. 반면 교통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284, 유의확률이 .201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식사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t값이 0.288, 유의확률이 .774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숙소만족도와 프로그램만족도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6.846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294로 29.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표4-32〉 여학생의 경우 만족도에 따라 추천의사 다중회귀분석

계수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623	.163		3.827	.000
숙소만족평균	.102	.089	.088	1.136	.257
프로그램만족평균	.446	.083	.404	5.345	.000
교통만족평균	-.087	.091	-.068	-.959	.339
식사만족평균	.121	.081	.130	1.504	.134

a. 종속변수: 추천의사
F=18.753, Sig=.000, R2=.260

‘여학생의 경우 만족도에 따라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숙소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136, 유의확률이 .257로 나타나 가설을 기각하였다. 반면 프로그램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5.345, 유의확률이 .000으로 가설을 채택하였다. 교통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0.959, 유의확률이 .339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식사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t값이 1.504, 유의확률이 .134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오직 프로그램만족도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8.753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분석에 대한 R2=.260로 26.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가설6. 교육여행의 만족도는 성별에 따라 재방문의사결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6-1) 성별에 따라 숙소만족도는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2)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만족도는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3) 성별에 따라 교통만족도는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4) 성별에 따라 식사만족도는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4-33〉 남학생의 만족도에 따라 재방문의사 다중회귀분석

모형	계수a			t	유의확률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339	.220		1.539	.126
숙소만족평균	.427	.120	.292	3.562	.000
프로그램만족평균	.368	.105	.301	3.492	.001
교통만족평균	.099	.139	.060	.714	.476
식사만족평균	-.141	.102	-.121	-1.380	.169

a. 종속변수: 재방문의사
F=11.663, Sig=.000, R2=.224

‘남학생의 경우 만족도에 따라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숙소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562,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492, 유의확률이 .001로 가설도 채택하였다. 반면 교통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0.714, 유의확률이 .476으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식사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t값이 -1.380, 유의확률이 .169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숙소만족도와 프로그램만족도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1.663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224로 22.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숙소만족도,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표4-34〉 여학생의 경우 만족도에 따라 재방문의사에 다중회귀분석

계수a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63	.148		3.797	.000
숙소만족평균	.105	.082	.104	1.288	.199
프로그램만족평균	.304	.076	.317	3.999	.000
교통만족평균	-.098	.083	-.088	-1.188	.236
식사만족평균	.105	.074	.129	1.427	.155

a. 종속변수: 재방문의사
F=12.117, Sig=.000,R2=.185

‘여학생의 경우 만족도에 따라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숙소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288, 유의확률이 .199로 나타나 가설을 기각하였다. 반면 프로그램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999, 유의확률이 .000으로 가설을 채택하였다. 교통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188, 유의확률이 .236으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식사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t값이 1.427, 유의확률이 .155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오직 프로그램만족도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2.117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185로 18.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제4절 분석 결과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35〉 가설 검증 결과 - 성별에 따른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

가설	종속변수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p.	채택/기각
가설2	추천의사	남학생	1.94	1.144	0.685	0.494	기각
		여학생	1.87	0.936			
가설3	재방문의사	남학생	1.57	1.021	1.166	0.244	기각
		여학생	1.46	0.814			

성별에 따른 추천의사에 있어서 $t=0.685$ 유의확률(양측) $p=0.494$ 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라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미하지 않아서 기각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재방문의사에 있어서는 $t=1.166$ 유의확률(양측) $p=0.244$ 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성별에 따라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도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하였다.

〈표4-35〉 가설 검증 결과 - 성별에 따른 여행전후 인상

가설	변수1	변수2	t	p.	채택/기각
가설4-3 (남학생)	여행전 인상	여행후 인상	-1.733	.085	기각
가설4-4 (여학생)	여행전 인상	여행후 인상	-2.749	.006	채택

남학생인 경우 t 값은 -1.733 으로 (± 1.96 보다 크지만), 유의확률은 0.085로 0.05보다 크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여행전과 여행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 수준하

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설 여행 전 후 인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각한다. 그리고, 여학생인 경우 t값은 -2.749로 (±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06로 0.05보다 작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여행전과 여행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 수준하에서 차이가 있어서 가설은 채택하며, 여학생의 경우 여행 전 후 인상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1) 남학생

〈표4-37〉 가설 검증 결과표

가설	종속변수	독립변수	t	p.	회귀식		채택/기각
					F	p.	
가설5	추천의사	숙소만족도	3.976	.000	16.846	.000	채택
		프로그램만족도	4.558	.000			채택
		교통만족도	-1.284	.201			기각
		식사만족도	.288	.774			기각
가설6	재방문의사	숙소만족도	3.562	.000	11.663	.000	채택
		프로그램만족도	3.492	.001			채택
		교통만족도	.714	.476			기각
		식사만족도	-1.380	.169			기각

‘남학생의 경우 만족도에 따라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숙소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976,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4.558, 유의확률이 .000으로 가설도 채택하였다. 반면 교통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284, 유의확률이 .201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식사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t값이 0.288, 유의확률이 .774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숙소만족도와 프로그램만족도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6.846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²=.294로 29.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만족도에 따라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숙소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562,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492, 유의확률이 .001로 가설도 채택하였다. 반면 교통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0.714, 유의확률이 .476으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식사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t값이 -1.380, 유의확률이 .169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숙소만족도와 프로그램만족도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1.663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2=.224로 22.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숙소만족도,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2) 여학생

<표4-38> 가설 검증 결과표

가설	종속변수	독립변수	t	p.	회귀식		채택/기각
					F	p.	
가설5	추천의사	숙소만족도	1.136	.257	18.753	.000	기각
		프로그램만족도	5.345	.000			채택
		교통만족도	-.959	.339			기각
		식사만족도	1.504	.134			기각
가설6	재방문의사	숙소만족도	1.288	.199	12.117	.000	기각
		프로그램만족도	3.999	.000			채택
		교통만족도	-1.188	.236			기각
		식사만족도	-1.427	.155			기각

‘여학생의 경우 만족도에 따라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숙소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136, 유의확률이 .257로 나타나 가설을 기각하였다. 반면 프로그램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5.345, 유의확률이 .000으로 가설을 채택

하였다. 교통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0.959, 유의확률이 .339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식사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t값이 1.504, 유의확률이 .134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오직 프로그램만족도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8.753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분석에 대한 R²=.260로 26.0%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만족도에 따라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숙소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288, 유의확률이 .199로 나타나 가설을 기각하였다. 반면 프로그램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999, 유의확률이 .000으로 가설을 채택하였다. 교통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188, 유의확률이 .236으로 가설3-15을 기각하였다. 식사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t값이 1.427, 유의확률이 .155로 가설3-16을 기각하였다. 즉, 오직 프로그램만족도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12.117의 수치를 보이며, 회귀식에 대한 R²=.185로 18.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3) 조사대상 전체

〈표4-39〉 가설 검증 결과

가설	변수1	변수2	t	p.	채택/기각
가설	여행전 인상	여행후 인상	-3.190	.002	채택

조사대상 전체 따른 t값은 -3.190으로 (±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02로 0.05보다 작다. 따라서 성별전체의 경우 여행전과 여행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설은 채택하며, 성별전체인 경우 여행 전 후 인상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표4-40〉 가설 검증 결과

가설	종속변수	독립변수	t	p.	회귀식		채택/기각
					F	p.	
가설5	추천의사	숙소만족도	3.520	.000	33.120	.000	채택
		프로그램만족도	7.146	.000			채택
		교통만족도	-1.384	.167			기각
		식사만족도	0.767	.443			기각
가설6	재방문의사	숙소만족도	3.860	.000	12.117	.000	채택
		프로그램만족도	5.328	.000			채택
		교통만족도	-.265	.791			기각
		식사만족도	-.413	.680			기각

조사대상 전체 만족도에 따라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숙소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520,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7.146, 유의확률이 .000으로 가설도 채택하였다. 반면 교통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1.384, 유의확률이 .167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식사만족평균이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t값이 0.767, 유의확률이 .443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숙소만족도와 프로그램만족도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대상 전체 만족도에 따라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검증을 실시한 결과 우선 숙소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3.860,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5.328, 유의확률이 .000로 가설도 채택하였다. 반면 교통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t값이 -.265, 유의확률이 .791으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식사만족평균이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도 t값이 -.413, 유의확률이 .680으로 가설을 기각하였다. 즉, 숙소만족도와 프로그램만족도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별전체인 경우 숙소만족도,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여행은 언제나 준비하는 과정부터 설레게 하며, 준비하는 동안 여행은 시작된다고 생각된다. 가족들과 떠났던 여행 이외에는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진행되는 수학여행이 첫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창시절 거의 대부분에 학생들은 수학여행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으며, 그때 느꼈던 좋은 감정은 훗날 학창시절 떠났던 수학 여행지를 성인이된 후 다시 가고 싶은 여행지로 택하기도 한다.

수학여행은 청소년시기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며,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는 교육적인 의미와 인성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학년이 대규모로 동일한 시기와 장소를 다녔던 관광지 관람위주에 수학여행은 현재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으로 학생, 학교,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주제가 있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을 선택한 교육여행으로 변화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분석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을 지역 관광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성별 차이에 대해 분석해 보고, 교육여행에 만족도와 재방문과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실증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서적, 논문, 기타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개념 및 특징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재방문의사와 추천의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실증분석은 일반적인 사항과 프로그램 만족도 그리고, 재방문의사와 추천의사 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 사항과 교육여행 일반적 사항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은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만족도와 추천의사, 만족도와 재방문의사는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증은 독립표본t검정분석, 대응표본t검정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400부의 설문을 배포하여 모두 회수하고 그 중 386부의 유효 표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학생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숙소, 프로그램, 교통, 식사 만족도와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에서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제주여행 출발 전 후 인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성별에 따른 여행전과 여행 후는 유의미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는 여행전과 여행후의 평균은 유의미 하지 않아서 기각되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여행전과 여행후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채택되었다.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만족도가 추천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남학생인 경우는 숙소만족, 프로그램만족도만 유의수준 하에서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가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는 숙소만족, 프로그램만족도만 유의수준 하에서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인 경우는 숙소만족도,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학생인 경우는 프로그램만족도만 유의수준 하에서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도가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도 프로그램만족도만이 유의수준 하에서 재방문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인 경우는 프로그램 만족도만이 추천의사와 재방문의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에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개발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성향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다양한 테마형 교육여행에 프로그램의 개발되어야 한다.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지원센터 및 각 관공서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은 한정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없다. 제주도에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은 학생들에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고, 향후 재방문과 추천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숙소, 교통은 이전 선행연구에서보다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숙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과는 아니다. 학생들이 여행의 편의시설 이용은 고급화하여야 한다. 숙박은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며, 숙소에 위생 상태 및 숙소와 교통에 대한 안전점검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과거나 현재에도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식사부분이다. 가장 기본적인 음식은 단체라는 이유로 질이 떨어지고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은데, 학교 급식을 생각해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 좋은 식사와 제주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색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도 방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여행 만족도가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이 서울지역에 재학하는 2학년 고등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결과의 분석이나 적용을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추후 폭넓은 지역과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연구기간이 시기적으로 성수기인 봄에만 이루어져 다른 계절에 오는 학생들에 의견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계절별 성·비수기를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숙소와 교통편 선택에서 다양한 표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사 대상 표본에서 숙소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제주항공우주 호텔에서만 조사가 되었고, 또한 교통편으로는 모두 비행기를 선택했다. 다양한 숙소와 교통편 조사가 부족하여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확인함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숙소와 교통편 또한 다양한 표본조사가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단계이다. 학생들이 주체성을 갖고 교육여행을 선정할 때 제주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향후 청소년들이 성인이된 후 관광이미지와 관광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고경자(2005), 고등학교 수학여행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동우(1998a), 관광의 심리적 체험과 만족감의 관계.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고동우(1998b), 선행 관광행동연구의 비판적 고찰. 관광학 연구. 22(1) 207-228.
- 고영길·박용민(2011), 국내수학여행 관광지 선택속성 IPA연구 : 교사와 학생의 인식조사를 통해. 관광레저연구. 23(8) 267-283.
- 김계섭(1998), 「교육관광 길눈이」, 부산 : 교육관광.
- 김영면(2007), 청소년의 교육관광이 미래관광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훈(2015), 청소년의 개인가치와 관광동기가 교육관광선호 및 교육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주(2005), “문화관광지의 교육적 체험이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훈(2004), 수학여행모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훈(2007), 청소년의 관광의사결정이 반영된 수학여행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사회관학연구』, 13(0), 203-229.
- 김윤정(2005), 서비스 특성에 따른 브랜드 개성과 브랜드 동일시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2011), 청소년 학습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현주(2015), 지역관광 활성화의 실천적 대안, 청소년 관광. 한국관광정책 제59호, 2015.3, 26-31.
- 김현자(2015), 관광자원해설과 현장체험학습이 교육적 효과와 관광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을 중심으로, 배재대학

- 교 관광축제호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근·장경수(2001), “HISTOQUAL을 이용한 문화유산관광지의 서비스품질 측정
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9(2)
- 김종민(2007), 2007수학여행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관광공사.
- 김중훈(2015), 청소년의 개인가치와 관광동기가 교육관광선호 및 교육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관광산업연구소(1996), 관광연감, 서울: 자유문고, P.148.
- 경향신문(2014), 「지금 논쟁중」 초·중·고 수학여행 없애야 하나, 2014. 4. 24.
- 문희숙(2005), 청소년 관광만족제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희숙(2009), “문화관광축제의 매력속성이 수학여행 만족과 효과에 미치는 영
향”,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동규(2008), 축제만족도가 재방문의사와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8(11), 356-363.
- 문창현(2013), 광주시 국내외 청소년 교육관광 유치활성화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 박선희·박신자(2000), 서울시 남녀 고교생의 경주지역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호텔관광연구』, 4(0), 109-129.
- 박정애(2016), 수학여행_유형_지각된가치, 만족, 교육적 효과간의 영향관계 연구.
안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애경(2012),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2003), 고등학교 수학여행의 교육적 효과 향상 방안, 동아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송재호, 고계성(2015), 관광개발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
경영학회지』 28(1), 39.
- 신명석(2002), 대규모 집단 수학여행과 소규모 테마별 수학여행의 만족도 비교.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14(2002), 99-117.
- 서동형(2009), 수학여행 관광지 속성중요도와 선호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교육청(2012), 2012학년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길라잡이.
- 서울시교육청(2015), 201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운영 안내.
- 서울시교육청(2016), 2016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운영안내.
- 서울시교육청(2017), 2017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운영안내.
- 유기석·김항석(2006), 국외수학여행 활성화 연구, 관광경영연구, 10(2), 169-194.
- 우은숙(1995), 수학여행의 효율화를 위한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이유재(1995), 고객만족의 결정변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논비. 28(1,2). 90-123.
- 유선정(2010), 유형별 청소년관광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 자유여행·수학여행·사
회단체여행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명신(2001), “체험관광객의 활동 유형별 선호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청소
년캠프활동을 중심으로”, 세종대 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호근·박경태(2007), 녹차밭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와 만족고 재방문 의도에 미
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13(2), 110-122.
- 유승각(2011), 도시관광 만족이 재방문 및 구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호텔관광학
회, 40(2011), 53-72.
- 이재섭·김경원(2009), 교육관광상품의 만족, 추천의도,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상품유형을 중심으로. 관광서비스연구 9(1), 93-111.
- 이은미(2005), 관광목적지 이미지와 관광 동기가 관광객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영(2012), 울산 지역내 관광유입 확대 방안 - 청소년 관광유입 활성화를
중심으로-, 울산발전연구원.
- 이진희(2013), 제주도 관광지의 관광동기유형에 따른 관광만족에 관한 연구; 중문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7(7); 11-32.
- 임화순·강영순(2008), 관광행태별 관광자원 선호도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관광객
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0(2); 229-248.
- 임화순,고계성(2013), 관광지 방문객의 방문동기가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관광연구저널, Vol.27 No.2.

- 윤경렬(2005), 신라유회: 신라문화재 학술발표논문집, 신라문화신양회, P.299
- 장성수,강보식,고계성,노경국,박은경(2016), 「최신 관광자원론」, 백산출판사.
- 장성수(2010),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학총론」 제26장,한국관광학회,백산출판 사, 692.
- 장성수(2001), 문화관광자원의 개념과 지연성 척도, 『학술연구 발표논문집』, 한국관광학회 제50차 학술심포지움 및 정기학술발표대회, 11-19.
- 조혜경(2008), 수학여행의 교육적 기능회복 방안.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영(2013),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추이에 따른 농촌체험의 교육적 효과.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수(2010), 농촌관광의 서비스품질이 방문자만족, 재방문의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4(6), 457-472.
- 조혜정(2012), 인천시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전형규(2008), “관광지의 특성, 관광자의 지각된 가치, 만족, 행동의도간의 관계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용복 · 부창산 · 김민철(2012), 도서 관광지의 선택속성, 서비스 가치, 만족도 및 행동의도 관계연구: 추자도를 대상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24(3), 406-415.
- 최용복 · 부창산(2007),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이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 및 추천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 벚꽃축제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13(2), 272.
- 최승순(2012), “관광지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가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방한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6(2), 267-284.
- 하광수·한범수(2001), 주제공원 방문자의 만족과 방문후 행동의도의 결정요인 :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25(34),329-347.
- 한국관광공사(2003), 「수학여행 실태조사」;(2007), 「수학여행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2010), 「교육여행 실태조사 및 발전전략 보고서」
- 한국관광공사(2006), 청소년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서울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2007), 2007 수학여행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서울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2013), 2013 청소년 국내관광 현황 및 수요조사. 서울 : 관광문화팀.
- 한국수학여행 협회(1985), 「수학여행」.

통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여행협회 등의 각년도 통계자료

2. 국외문헌

Bitner, M. J.(1990), “Evaluating Service Encounters : The Effects of Physical Surroundings and Employee Responses”, *Journal of Marketing*, 54(April): 69-82.

Baker 와 Crompton(2000), Baker, D. A. and J. L. Crompton(2000), “Quality, Satisfaction and Behavior Inten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3), 785-804.

Curren, M. T., & Folkes, S.(1987), Attributional Influences on Consumer’s Desires to Communicate About Products. *Psychology and Marketing*, vol.4.

Fishbein&Ajzen(198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Addison-Wesely, 1985.

Lounsbury, J. & Polik, J. R.(1992), Leisure needs and vacation satisfaction, *Leisure Sciences*, 14(2), 105-120.

Makin(London,1673), Bathsua, An Essay to Revive the Antient Education of Gentlewomen in Religion, Manners, Arts & Tongues with an Answer to the Objections against this Way of Education.

Oliver, R. L.(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September), 460-469.

3. 기타 정보 사이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원센터: <http://gogo.sen.go.kr>

서울시교육청: <http://open.sen.go.kr/suhak/suhak/list.do?bbsCd=1>

제주도교육청: <http://www.jje.go.kr/index.jje>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
Edu-Tour In korea: www.edutour.or.kr
웰촌: www.welchon.com
Visit Seoul: www.visitseoul.net
부산시 투어: <http://tour.busan.go.kr>
인천투어: <http://itour.visitincheon.org>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포털: <http://utour.gwangju.go.kr>
대구관광: <http://tour.daegu.go.kr>
사이버 강원관광: www.gangwon.to
경기관광포털: <http://ggtour.or.kr>
충북나드리: www.chungbuknadri.net
충남: <http://tour.chungnam.net>
경북: www.gbtour.net
경남관광길잡이: <http://gntour.com>
전라북도문화관광정보: www.gojb.net
남도여행길잡이: www.namdokorea.com
제주놀명취명: www.jejutour.go.kr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만족도”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사용되며, 설문 내용은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김 연 수

지도교수 : 최 용 복

anne1209@hanmail.net / H.P : 010.4407.1626

다음 문항은 청소년 여러분들의 소규모테마 교육여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설문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충분하다 ② 조금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부족하다 ⑤ 부족하다
2.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시 여행안내는 주로 누가 했습니까?
① 전문 여행가이드 ② 운행기사, 안내원 ③ 인솔선생님 ④ 안내자가 없었음
3. 여행안내 가이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⑤ 해당없음
4.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직접보고, 체험을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② 교우 관계에 도움이 되었다.
③ 심신단련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④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⑤ 기타()

II.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만족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시 다음사항에 대한 만족정도를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해주십시오.

구분	내용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숙소	1. 숙소가 안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잠자기에 편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숙소에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추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숙소가 청결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후배들에게 이 숙소를 이용하도록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1. 역사·전통테마가 흥미있었다. (성읍민속마을, 향목유적지..... 등)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예술테마가 흥미있었다. (이중섭미술관, 제주추사관(김정희).... 등)	①	②	③	④	⑤
	3. 자연생태 테마가 흥미있었다. (올레길, 성산일출봉,...등)	①	②	③	④	⑤
	4. 과학탐구 테마가 흥미있었다. (항공우주박물관, 다빈치뮤지엄... 등)	①	②	③	④	⑤
	5. 체험 테마가 흥미있었다. (메이즈랜드, 카트, 레일바이크..... 등)	①	②	③	④	⑤
	6. 프로그램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문화해설사(지도강사)는 친절하게 지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문화해설사(지도강사)는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문화해설사(지도강사)가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교통	1. 버스운행기사는 친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버스운행기사는 안전하게 운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이용한 교통수단은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식사	1. 식사는 맛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식사의 양은 충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식당은 청결하게 관리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조리종사원은 친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기타	1. 이번 여행 내용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 제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조금 있다 ③ 조금 없다 ④ 없다 ⑤ 모르겠다
2. **여행 출발전** 제주도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① 좋았다 ② 조금 좋았다 ③ 조금 안좋았다 ④ 안좋았다 ⑤ 모르겠다
3. **여행후** 제주도에 대한 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① 좋아졌다 ② 조금 좋아졌다 ③ 조금 안좋아졌다 ④ 안좋아졌다 ⑤ 모르겠다
4. 기회가 된다면 제주도에 **다시 방문**하시겠습니까?
 ①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조금 그렇지않다 ④ 그렇지않다 ⑤ 모르겠다

Ⅲ. 다음은 학생의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1. 학생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학생의 학년은?
 ① 중학교1학년 ② 중학교2학년 ③ 중학교3학년
 ④ 고등학교1학년 ⑤ 고등학교2학년 ⑥ 고등학교3학년
3. 제주도를 방문한 경험은?
 ① 처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이상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The Effect of Educational Travel Satisfaction on Return Intention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visiting Jeju-

Kim, Yeon su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trips help students to deal with academic stress in their teenage years, make friendships more intimate, experience a new world outside of their daily lives, . Although youth tourism can not be said to be a big part of the tourism market,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terest in the education and tourism market for young people with high self - development needs considering that it is a growing educational and tourism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adolescents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mmendation and recommendation between educational experience, tourism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s do.

Through theoretical studies, first, we will explore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features of small-scale themed educational trips. Second, I would like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mall - scale theme - based educational trips on youth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at kind of current small-scale theme-based educational trips are being conducted, to draw out problems, an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maximize the satisfaction of tourists through educational trips, I want to present it.

The spatial extent of the research was limited to the youth visiting Jeju Island. The time frame is a small-scale theme-based educational trip to visit in June 2016 and April 2017, All subjects were limited to the second grade of high school in Seoul.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00 copies distributed in a self-replicating manner, and 386 copies were selected as the final validity sample except for the questionnaire with poor response or low reliabil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 statistical package.

According to empirical analysis, the hypothesis that the satisfaction level of small-scale theme-based educational trips in Jeju will be different from that of recommendation, suggests that male students influence recommendation doctors only at the level of housing satisfaction and program satisfaction. In the hypothesis that there will be a differenc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ntention to revisit the hotel satisfaction and program satisfaction only at the significance level.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only male students' satisfaction and program satisfaction influenced recommendation doctors and revisit intention.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only the satisfaction of the program was found to affect the recommendation physician at the level of significance. Also, the hypothesis that the satisfaction of physician was different from the physician's. Therefore,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only the satisfaction of the program has an influence on the recommendation doctors and willingness to revisit.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a variety of programs are needed depending on the tendency to develop specialized programs and interest to maximize the educational effects of small-scale themed.

First, the program should be developed on various thematic educational trips. The small-scale themed travel support center and the programs provided by each government office are limited and there are no differentiated programs. A variety of program experiences that make 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will enhance the students' satisfaction and will affect their future visits and recommendations.

Second, accommodation and traffic improved much more than the previous study, but this study is not general result because it covers limited accommodation. Students should make use of travel amenities more advanced. Accommodation provides a comfortable and pleasant atmosphere, and sanitary conditions and safety checks

for accommodation and transportation should be thoroughly conducted at the accommodation.

Third, it is the part of the meal that has the least satisfaction in the past and present. The most basic food is poor quality and unsanitary because of being a group. Considering school meals, students should be able to provide good quality meals and special meals that can only be eaten in Jeju.

Finally, small-scale themed educational trips are a trial and error step. By providing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select the most educational and educational trips, Jeju Island offers the most convenient facilities and a wide variety of programs to choose from. It is significant that it has an impact.

This study will be more meaningful if it provides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operating progra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he small-scale theme educational travel satisfaction on the revisit inquiry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and the gender difference of the youth.